

한인뉴스

2016

5

VOL. 239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S7 edge | S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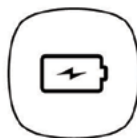
More Than A Phone



Brighter & Faster
Camera



IP68-Water & Dust
Resistant



Faster
Charging



Hybrid
Dual SIM

Customer service: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



Samsung Mobile Indonesia



@Samsung_ID



Samsung_ID



Samsung Indonesia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기종
자카르타 서울	KE628	2205	0705 ⁺	매일	77W
서울 자카르타	KE627	1520	2010	매일	77W
자카르타 서울	KE626	0815	1735	월,목,일	330-200
서울 자카르타	KE625	1850	2355	수,토,일	330-200

*대한항공 발리-서울 노선 매일 운항

예약 및 기타 문의는 아래 대한항공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자카르타 지점 : 62-21-521-2180
www.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OTTE SHOPPING AVENUE
New Shopping Paradigm

May

LOVELY SPRING

5월2일 ~ 15일



GET CASHBACK UP TO **IDR 350,000**

*200/500/700만루피아 이상 구매시



100만루피아 이상 구매시
롯데상품권 추가 증정 (BNI은행 신용 카드)

Min. Purchase IDR 1 Mio (Not Valid on Weekend & Public Holiday)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Service Lounge (2F)

* Terms & Conditions Apply

NEW TENANTS



최고의 글로벌 패션
SPA 브랜드



IL GELATO COME UNA VOLTA

이태리의 유명한
젤라토



세계 최대 마늘 테마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이프스타일
여행 가방 브랜드

BAZAAR



UP TO
70%

락앤락 창고대개방

4월29일 ~ 5월11일

세인트 제임스 고객 감사대전: 레녹스, 젠, 외

5월12일 ~ 18일

락셔리 브랜드 대전: iROO & Shoppe33

5월11일 ~ 31일

EVENT



응답하라 2016 한인 문화 활동!

Korean Artist

제3회 ART FESTIVAL

문예동종종합예술제

2016년 5월 21일(토)~25일(수)

롯데쇼핑 에비뉴
LOTTE SHOPPING AVENUE

예술 전시회

5월21일 ~25일

오프닝:

시간: 5월21일 4:30시

장소: Main Atrium GF

특별한 퍼포먼스

시간: 5월21일 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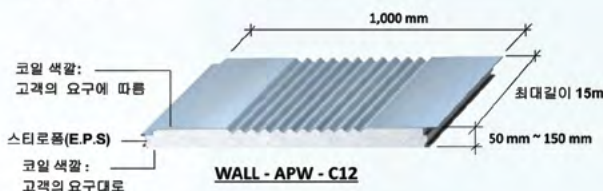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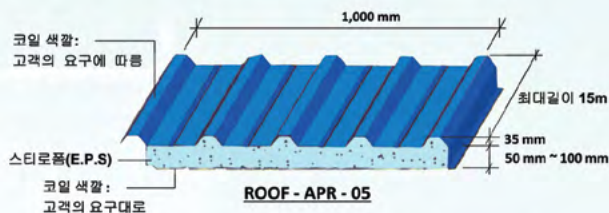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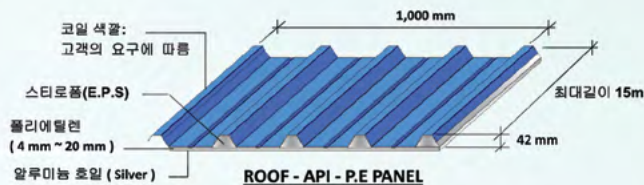
장소: Ice Palace 4F

Api PT. ANEKA PANEL INDONESIA

Do it now!

MANUFACTURE OF SANDWICH PANEL

최상의 품질!
신속한 처리!
최상의 서비스!



MKU PT. MULTI KONSTRUKSI UTAMA

LEAP 21 ENGINEERING & GENERAL CONTRACTOR

성실 시공만을 고집하는 건설회사



HEAD OFFICE :
Wisma korindo 7th Floor
Jl. M.T. Haryono Kav. 64 Jakarta 12780
Tel. (021) 797 8989 / 8949
Fax. (021) 797 8990 / 8951

FACTORY :
Jl. Anggadita, Klari, Karawang Timur
Jawa Barat
Tel. (0267) 431 816
Fax. (0267) 431 817

E-Mail :
cbwapi@gmail.com | api15@anekapanel.co.id | mku15@multikonu.co.id



송금수수료

U\$20.⁰⁰ ONLY

KOREA

송금

신속 정확한 송금은
이제 BNI 은행을
이용하세요

BNI smart remittance

송금취급은행 BNI 은행 전국지점
송금 콜 센터 (021) 2994 6099

1500046
BNI Call



@BNI46



BNI

 BNI

Serving the Country, the Pride of the Nation

PT. TOILON INDONESIA
CROSSLINKED POLYOLEFIN FOAM

Energy Saving

TOILON

인도네시아 최초 난연 가교발포폼 제조업체로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 인도네시아내 1위의 생산능력을 구축하여
차별화된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산제품명 : Duct / Pipe / Roof Insulation(단열보온재),
Acoustic Liner(소음 흡음재), 가방/신발/자동차 부자재, 실내의 매트, 폼블럭

PT. TOILON INDONESIA

Jl. Raya Serang Km.16.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연락처: 사무실(021-5940-4086/7) 제환영 부장(0815-1902-0499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자문 회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회사명 : P.A.K. Law Firm(김민수 변호사)

○ 법률자문 내용

- 인도네시아의 무역·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

○ 주의사항

- 불법 및 편법적인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우리 기업 대상 법률자문서비스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문으로 구체적 자문내용에 대해 대사관과 자문 법률회사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대사관 윤현숙 전문관에게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 명기)

○ 대표전화: (021) 2967-2555

○ 이메일: nayhs@hotmail.com /끝/



※ 본 캠프는 해외교포, 유학생, 국제학교 학생을 위한 전문 영어캠프입니다.

"나는 외대부고로 간다!"

세계와 하나되는 외대부고 캠프 국제과정 프로그램

HAFS Global Camp

기간 / 장소 한국외대글로벌캠퍼스 2016년 6월 19일(일) ~ 7월 12일(화) [23박 24일]

대상 8학년 ~ 11학년

프로그램 정규 수업: Reading comprehension, Reasoning Math, English Grammar, Essay Writing
방과후수업: Reading & Discussion, 진로탐색, Mentoring & Consulting, Personal Essay, 특강
*자세한 프로그램 및 시간표는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지원방법 홈페이지(www.hafsglobalcamp.com) 접속 후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온라인 결제

캠프 문의 +82-31-324-0015, 070-4616-0393,
globalcamp@hafs.hs.kr

2016
Hankuk Academy of
Foreign Studies
HAFS Global Camp

외대부고 글로벌 캠프는 전 세계 22개국 한인 학생이 참가한 캠프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베트남, 쿠웨이트, 멕시코, 인도, 모나코,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요르단, 파나마,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이집트, 아르헨티나

2015 외대부고 주요 대입실적 | 예일 : 4명, 유엔 : 6명, 스탠포드 : 3명, 콜롬비아 : 7명, 다트머스 : 2명, 코넬 : 7명, 듀크 : 2명, 존스홉킨스 : 4명, 프린스턴 : 1명.

[참고] 2016년 서울대 79명 배출! 전국 1위 [출처] www.hafs.hs.kr 진학실적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4월23일 제 6회 국제어린이사생대회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adoodle]

차례

편집위원 칼럼/ Bahasa Indonesia와
현지 계약언어에 대하여 <황윤홍>.....12

신성철칼럼/인도네시아화교.화인1부.....14

이선진전대사의 일기5 '2006, 3 번 연기된 SYB
한국방문(3)'16

대사관 김치페스티벌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조직도

로봇저널리즘...

이미 증권, 스포츠관련기사가 AI에 의해 써지고 있습니다.

인간과는 다른 도식으로 일에 접근하므로 능률면에서 뛰어날리라 기대됩니다.

일본에선 SF문학상에서 AI가 쓴 소설이 1차 예선을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개발팀에서 설정을 주고 문장을 만드는 작업을 기계가 했다는데.

창의력도 빅데이터, 딥러닝에 의해 인간의 스토리를 학습한 기계가 유능하고

감동까지도 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마감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원고를 기다리며 기계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존재 앞에서 나를 생각하듯

로봇이 있어 인간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2016 한국문화관광대전 정호승 시인의 초청문학강연 인도네시아문학 KOICA, 107기 해외봉사단 인도네시아 입국 제6회 국제 어린이 사생대회 하리다르소노 한국에서의 특강	김종성의 생활법률, 그것이 궁금하다.....38
공감, 인도네시아 <김성월>.....28	지상갤러리/우관종 <김현경>.....40
최진열의 경제칼럼/인도네시아의 소득 불평등은 개선되고 있는가?.....29	집중! 이 사람/ PT. TOILON 제경종대표.....44
법무법인 금성, 개소식 지역한인회소식/ 동부자바한인회.....31	재난대비국민행동요령.....48
박상훈칼럼/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하게 살기2.....32	5월의 행복에세이 <이동균>.....52
JIS 소식 <김재호>.....34	선거의 역사 <장은교>.....54
2016년 4월 월간경제브리핑.....35	법률해설 <이승민>.....58
	JALAN-JALAN사공경칼럼/ 평화로운 도시, 족자.....60
	은행에서 필요한 BAHASA <허영순>.....63
	KOTRA 구인, 구직 안내.....64
	생활정보.....69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양영연 / 편집인 : 강희중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 메 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Bahasa Indonesia 와 현지 계약 언어에 대하여

편집위원 황윤홍

현지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인니어로 작성된 계약서만이 유효하다**’ 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러나 기타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도 경우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는 서구 못지 않게 모든 일에 있어 계약서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재판이나 세무조사 등에 있어 계약서 대로 적용, 운영 되었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그러나 2개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경우 법적 해석에 있어서도 과연 인니어 계약만이 유효한 것일까? 아래는 현지투자 조연을 위한 외국보고서의 일부를 정리 소개한다.

인도네시아(이하 인니)는 국위선양을 위해 2009년 7월 9일 법률 [법률24/ 2009 국기, 언어, 국장과 국가에 관한 제반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동법 제 25조는 [1945년 헌법 제 36조 의거 Bahasa Indonesia 가 유일한 국어이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31조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 (1) 인니 국가, 정부, 기업, 국민 간의 합의서 혹은 계약서는 인니어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 (2) 상기 1항의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해당 외국 당사자의 모국어 (Bahasa Nasional) 혹은 영어 작성도 가능하다.

위 1항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인니기업 혹은 인니 인과의 계약에 있어 인니어로의 계약이 당연 한 것으로 생각 되지만, 2항은 외국인의 모국어 혹은 영어 계약서 작성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위 1항과 2항의 상호 관련이 애매하긴 하지만, 외국인의 인니 내 계약에 있어 반드시 인니어 계약서 만이 유효한 지에 대하여는 꼭 그렇지 만도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복수 언어로 계약이 체결 된 경우 분쟁시 어떤 언어를 기준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어느 한쪽 언어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양 당사자 간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라고 명시하는 것이 일반 관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 법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니 진출 외국기업들은 여전히 인니기업과의 계약에 있어 거의 대부분 인니어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고 있고 또 이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판례도 동 31조 해석에 있어 영어로만 작성된 계약서를 무효화 한 사례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산 권리, 이전에 관한 계약의 경우 필히 인니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준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 인니 국어인 ‘바하사인도네시아’ 는 어떤 언어일까?

인니어는 아시아 언어 중에서 아름다운 악센트를 뽐내며 특히 여성이 사용하면 품위가 느껴지는 언어로 알려져 있다. 인니Pancasila(뽀짜실라/건국5원칙)에는 국민의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를 국교로 지정하지 않았듯이, 인니 국어도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자와어가 아닌 소수계층의 언어를 국어로 선택하였다.

현재 ‘바하사 인도네시아’ 는 당시 전국민의 12% 만이 사용하던 ‘Melayu(믈라유)’ 를 모체로 한 언어를 국어로 지정하였다는 의미는 ‘국민대통합’ 이라는 관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인니어는 언어학적으로 말레이어로 ‘믈라유’ 라고 불리어 진다. 현재 수마트라와 말레이 반도에 걸친 말루카해협은 옛날부터 동서문화를 연결하는 교통 요지로 인도인, 아라비아인, 중국인 유럽인 등 다민족간에 교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던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는 신분, 계급도 존재치 않았고 복잡한 경어 표현도 없었으며 단지 교역 언어로서 원활한 의사소통만이 주 목적인 언어였다.

동 언어는 1824년 영란협정에 따라 말루카해협이 영국령과 네덜란드령으로 나뉘었는데, 당시 네덜란드령에 속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자와어, 순다어와 지방언어 그리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산스크리트어, 힌두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등의 영향을 받으며 말레이어와는 다른 언어로 발전되어 왔다.

네덜란드 통치 당시 이미 ‘믈라유’ 어는 인근 주요 도시와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던 언어로 도시언어, 민족언어, 계급격차가 없는 민주적 언어로 이론적으로 볼때 인니 국어로 선정될만한 충분히 자격을 갖춘 언어임은 분명하다.

독립운동 기간 중 최대 인구가 사용하는 자와어를 독립 후 인니 국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새로운 국가 건설이 자와인 중심의 국가 성격을 지니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결국 1945년 헌법에 ‘바하사인도네시아’ 를 국어로 지정하였다.

국어가 될뻔했던 자와어는 한국어보다 경어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와어는 대화 상대가 친구나 아랫사람에 사용하는 Ngoko, 경어로 연장자에는 Krama, 두 계층에 모두 사용가능한 Madya, 왕궁 귀족어인 Kedaton, 속어로 하층민과 시골 언어인 Basa Kasar 가 있고 또 각 언어가 존경과 일반으로 나뉘어 사용된다.

이에 따라 대화 전에 상대 신분, 사회적 위치, 연령대를 파악 할 수 없으면 대화가 안되는경우도 있어 자와에서 교육 받고 자란 사람이 아니면 습득이 무척 어려운 점도 국어 선정에 있어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자와어가 좀 더 간편하여 국어로 선정 되었거나, 네덜란드 총독부가 네덜란드어를 조기에 현지 교육하여 정착시켰더라면 현재의 인니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국가 형성에 가장 중요한 국민 통합 언어의 한축이 바뀌는 것으로 현재의 인도네시아는 어떤 형태의 국가가 되었을지 궁금해진다.

인니에 진출해 사업을 운영하는 우리 동포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 요소는 말할 것도 없이 현지인과의 원활한 소통일 것이다. 소통의 기본 수단인 ‘현지말과 글’ 에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현지인에게 좀 더 공손하고 또 정확한 어휘 구사 능력을 배양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화교·화인 어떻게 부자됐나?”

인도네시아 화교·화인 1부 : “이들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정착했나?”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전 세계 퍼져있는 화교·화인은 한국의 인구만큼이나 많은 5천만명 가량이며, 이들이 보유한 유동성 자산은 3조 달러 가량으로 추산한다. 화교·화인 자본을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중국의 발전 방향을 알 수 없다' 라는 말도 있다. 이 같은 거대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화교·화인의 70%는 동남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흔히 인도네시아 경제를 화교·화인이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도네시아 금융과 무역, 제조업 등 대기업은 물론 소모품을 구매하기 위해 작은 가게를 가더라도 화교·화인과 흥정하기 일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기업인이나 한인은 화교·화인을 흔하게 만나게 되며, 이들에 대해 관심과 궁금한 점은 많으나 실제로 제대로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 나 자신도 이러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발동해 관련 서적들과 인터넷 검색, 직간접인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와 지식을 정리해 보았다.

수백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은 화교·화인의 역사를 짚어보면서 현지

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달 한인뉴스에 “이들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정착했나?” 라는 제목으로 1부를 게재하고 다음 호에 각각 2부와 3부를 연재하겠다. 한편 화교와 화인의 의미를 놓고 다른 의견이 있다. 최근 ‘화교’는 중국국적 소지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하고, ‘화인’은 법률적 의미에서 중국문화와 중국인 혈통을 보존하고 있는 비(非)중국국민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모두 ‘화교’로 통칭한다.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던 수하르토 집권기인 1980년대 말 인도네시아 화교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부색은 물론 외모가 흡사한 동년배 화교가 납품하기 위해 우리 회사 사무실을 찾아왔다. 자카르타 외곽의 농촌 마을에 회사가 위치해 있어서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에 둘러싸여 일상을 보내고 있던 터라, 그를 본 순간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웠다. “중국어 인도네시아인이지요?” 라고 인도네시아말로

문자, 한자를 못 쓰는 화교 청년은 손사래를 치며 “인도네시아 사람이다” 라고 일축했다. ‘눈치 보기’ 를 하던 이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계’ 라는 고백을 받아냈고, 그들의 인고의 세월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은 언제부터 인도네시아와 교류하고 정착했을까? 고대 당나라 상인들은 바다를 통해 남양(동남아)과 교역하며 발자취를 남겼다. 이들은 15세기부터 자바섬의 수라바야와 수마트라 빨렘방 등지에 수천명이 집단거주하며 무역활동에 종사했다. 1619년 네덜란드가 바타비아(현 자카르타)를 점령하면서 건설과 농업에 종사하는 화교들이 대규모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에는 중국 대륙 동남부 지역인 ‘푸첸’ 지역사람이 가장 많았고 이어 ‘광둥’ 지역사람과 중국 고대 화북 지역에 살다가 대거 대륙의 동남부로 이주한 명문 귀족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한족 가운데 하나인 ‘하카’ (客家) 사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엘리트 화교들은 바타비아와 수라바야 등 주요 항구도시에서 무역을 하거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서 징세와 국가전매 등의 행정업무를 맡으며 부를 축적했다. 17세부터 식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근면하고 현지 적응 능력이 뛰어난 화교 노동자들은 농업, 광업, 가공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영향력을 키웠다. 18세기 중엽, 서부갈리만탄에서 대규모 금광, 방까 섬에서 대

규모 주석광이 발견되면서 많은 노동력이 현지로 이주했다. 2차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인구가 급증했고, 19세기 중엽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인신매매와 같은 가혹한 방법으로 화교들을 대거 강제 구인했다. 인도네시아어로 막노동자를 말하는 꼴리(kuli)는 이때 생긴 말이며, 당시 청나라는 무역항구에 꼴리관(苦力館)을 설치하고 꼴리들을 모집해 송출했다.

화교들은 식민정부와 협력을 통해 부를 쌓았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식민중주국들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에 대한 투자는 거의 중단되었고 상품수출도 크게 감소했다. 동남아 화교들은 이를 기회로 부를 크게 늘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금융과 해운, 천연고무·담배·커피 등 농산물 가공업에 투자해 자본을 축적했다. 이후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유럽 식민중주국들을 몰아내면서 화교들은 한때 학살과 탄압의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화교들이 타지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그들만의 엄격한 규범이 있었다. 이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정하고 배타적일 만큼 혈연과 친척, 동향에 대한 철저한 의리를 지켰다. 이들은 모국어를 쓰며 모든 상거래는 현금 거래를 할 만큼 신용을 중시한다. 심지어 상거래에 카르텔을 형성해 전 세계 170여 개국에 대규모 화상 공동체를 만들었다.

무역상과 노동자로 이주해 정착한 인도네시아 화교들에게 세상은 번영만을 허락하지 않았다. 특유의 상술과 연대, 근면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자리 잡고 경제적 영향력이 커졌지만, 네덜란드 식민정부와 현지 원주민들과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내부 갈등이 커질 때마다 표적이 됐다. 1740년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화교 대학살, 1965년 9월 정변, 1998년 5월 폭동 등은 그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다음 호에 계속)





“2006년, 3번 연기된 SBY 한국 방문” (3)



Hassan Wirajuda & Susilo Bambang Yudhoyono

SBY 방문한 연기와 Hassan 장관의 방문한

7.12 10:40-11:20 하산장관이 먼저 연기 결정을 통보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 하산은 통상 나와의 면담 시 내가 20-30 분 가량 이야기하면 몇 마디로 답변할 정도로 평소 말을 매우 아끼는 성격이었다(그러나 장관 퇴직 후 만났을 때는 1-2 시간 거침없이 이야기할 정도로 실체는 달변가였다).

하산 장관의 요지는 SBY의 남북한 방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 북한만 방문을 취소할 경우 북한을 더욱 궁지로 몰아 넣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북한 방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나는 한국 방문 연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 중 특히 강조한 점은, 양국 정부 간 여러 가지 좋은 협력 사업과 민간 프로젝트는 북한과 무관하게 준비해 왔으며, 한국 “대통령” 과 국민들이 “북한 가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오지” 않는다는 논리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 한국 ‘정부’ 라고 할 부분을 한국 ‘대통령’ 이라고 한 이유는 사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자는 의도였다.

하산 장관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고 장관 재직 기간이 6-7년이 되는 만큼 국가 원수의 방문 연기가 가져오는 부정적 여파를 알고 있겠지만 나로서는 문제점을 분명히 기록에 남기겠다는 생각이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흥분하지 말자는 다짐을 하였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야기하였지만, 하나하나 따지는 나의 논리와 자세에서 나의 흥분 상태를 감지하였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하산 장관은 양국 정부 고위층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지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내가 “대통령 운운” 한 부분이 내심 마음에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나는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우리 국민 중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마저 이번 미사일 발사관련 북한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께서 북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을 오지 않는다는 설명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침을 박았다. 주재국 정부가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하여 반발하고, 그것도 주재국 외교 수장에게 맞대놓고 하는 경우 자칫하면 대사 자리를 내놓을 각오까지 해야 한다. 실제 동남아 주재 한국 대사 중에서 외교부 장관에게 잘못 보여 크게 곤욕을 치른 예들이 있다.

면담을 끝내고 오면서 동행한 우리 대사관 직원에게 하산 장관의 말씨는 삭감 없이 그대로 보고 하되, 나의 발언 내용은 한자도 쓰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해외 공관이 본부로 보고하는 내용은 외교부 본부만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 여러 기관들이 받아 본다. 방문 연기에 대하여 여러 부처들이 실망하였을 것이며, 이 경우 대개는 누구인가 비난 대상을 찾으려는(불만의 대상) 속성이 있다. 우선 대사가 그 첫 번째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사가 면피하기 위하여 때로는 강하게 반발하였다고 면담 내용을 과장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한다. 하산 장관에 대한 나의 반박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면 인도네시아 측의 문제점이 확대되어 보이고 비난과 불만의 화살을 주재국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양국 사이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해야 할 대사의 책무에 어긋난다. 이러한 비난은

바로 대사가 인내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나의 반박 내용은 일체 생략하고, 인도네시아 측의 방한 연기 이유만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7.12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SBY 남북한 방문 연기를 공식 발표하였다. 다음날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하산 장관의 서울 방문 계획을 알려왔다.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 방문 연기 이유를 북한 방문 연기와 연계시킬 경우 한국 측이 납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국의 강한 반발을 보고 놀란 하산 장관이 SBY에게 직접 건의하여 방한하기로 하였다 고 한다. 나로서는 하산의 서울 방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돌이켜 보면, 인도네시아 측은 내가 언급한 내용이 서울의 훈령에 따라 한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 대사의 개인 의견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신속하고 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7.17 하산 장관은 SBY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고 서울로 출발하였다. 서울의 냉랭한 분위기에 비추어 하산 장관에 대한 예우가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반 장관에게 섭섭하더라도 따뜻하게 대해 줄 것과, 아울러 이 기회에 반기문 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입후보 활동에 관하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도록 간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산 장관은 우리 대통령을 예방도 못하고 한국 방문을 마칠 정도로 서울 분위기는 싸늘하였다. 나도 하산 장관을 한동안 만나지 않았다.

풀리지 않는 의문

이렇게 2006년도 SBY의 방한 계획은 미루어졌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두고 SBY 북한 방문을 예정대로 추진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 대하여 의견 조회를 한 결과 각국의 반응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러 채널을 통하여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방북을 지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본은 처음에는 지지하였다가 나중에 반대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한국의 입장은 “조건부 지지” 인 것으로 현지 외교가에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나에게 직접 묻는 다른 나라 대사들도 있었다. 문제는 미국의 태도가 미확인이다. 나 자신 미국의 입장을 알고 싶었으나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미국 대사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인도네시아 외교부에 문의하면 알 수 있었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국의 반대로 SBY 방북이 취소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미국, 인도네시아 및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외교관은 알 필요가 없거나 알아서 불리한 사항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외교가에는 미국의 반대가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이러한 소문을 확산시킨 것은 방문 연기발표 며칠 후 국영 통신 ANTARA에 난 해설기사이다. 7.17자 기사 “Behind the cancellation of Yudhoyono’s visit to Korea” 는 SBY 방북연기에 대하여 미국의 개입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예둘러 쓰고 있다. 동 기사는 하산 장관이 이를 부인하는 코멘트도 같이 실었지만 미국 개입 설을 잠재울 수 없었다.

4. 개인적 과제(agenda) 하나를 잡다

연이은 방한연기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정부 내 신뢰가 많이 실추되었다. 나로서는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대사로서 할 일을 다 하였는가 하는 의문과, 다른 한편 대사관, 양국의 관계 부처,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조금씩 회복해 가는 한 인도네시아 관계 증진에 대한 열기(momentum)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등등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한동안의 고민 끝에 나의 개인적 과제(agenda) 하나인 인도네시아를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남북한 관계 개선에 활용하겠다는 의욕을 접기로 하였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2006년 SBY 방한이 실현되지 못한 배경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나의 욕심도 한 몫 하였을 것이다. 이 부분은 나중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 하겠다. 2006.7 SBY방한 연기 계기로 나는 그 동안 가졌던 북한 관련 개인적 과제를 깨끗하게 잊고 한. 인도네시아 경제교류 활성화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하였다.



Istana Merdeka Jakarta



대사관 김치 페스티벌

4월 27일, 한국대사관(대사 조태영)은 오계영 대사 부인 초청으로 자카르타 주지사 부인, 외국 대사부인, 국제부인회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치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직접 담가보고 시식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김치의 우수성과 다채로운 한국음식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열렸다.

오계영 대사 부인의 인사말 후, 동영상을 통해 김치 내력과 맛있는 김치 담그기, 김치 보관 등에 대해 노하우를 전수해 줬다. 또한 전문 요리사의 김치 시연과 참석자들이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치마를 두르고 체험을 한 참가자는 “한국식당에서 다양한 한국음식을 맛보았으나 김치 담그기는 처음이다”며 “이번에 배운 김치담기 방법으로 집에서 먹을 김치도 담가봐야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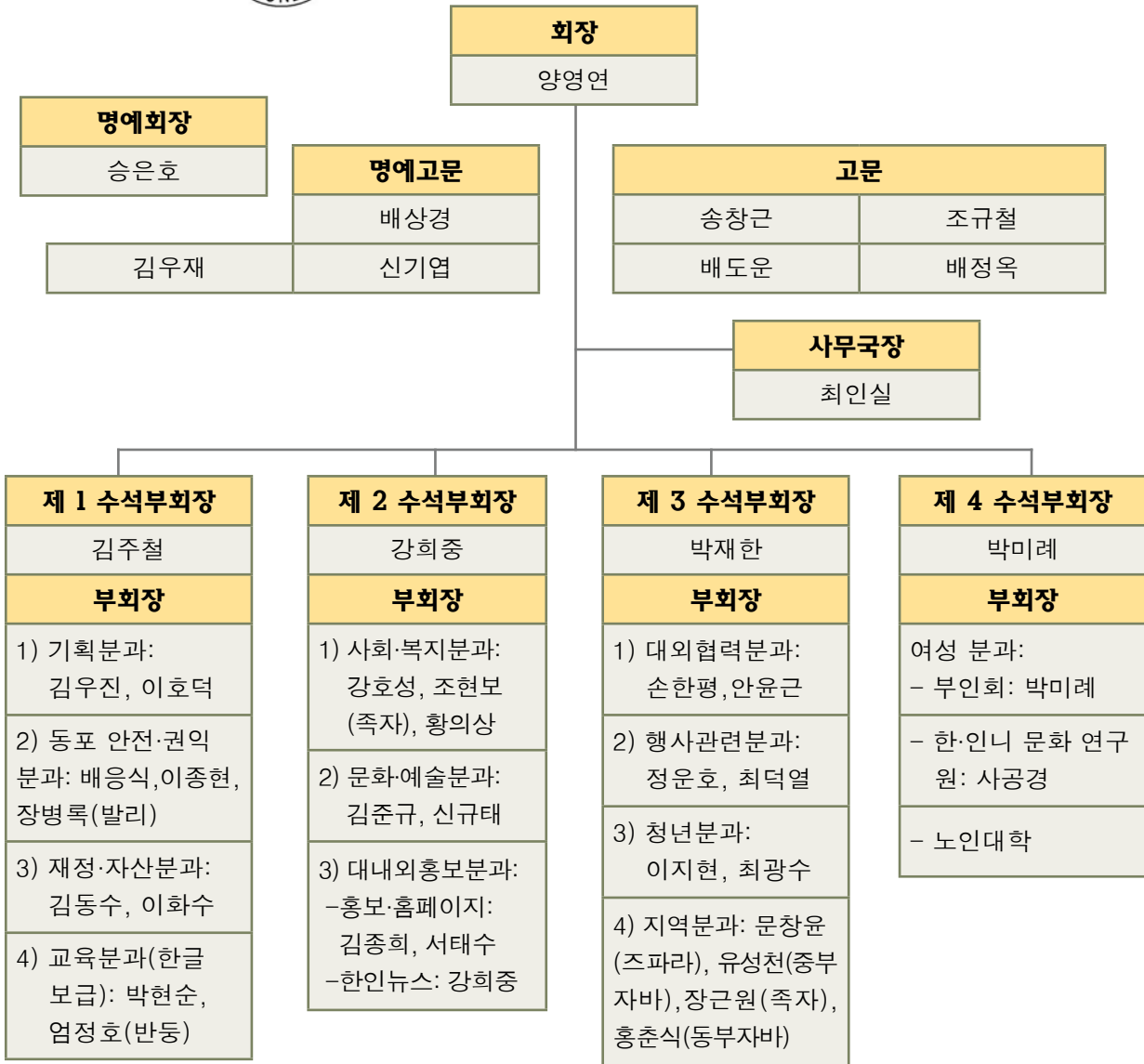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처음 접했지만 직접 만든 김치를 먹어보고 “맛있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만들어먹고 싶다”는 소감을 전하면서 대사관에서 준비한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다.

김치를 잘 알지 못하고, 매운 음식을 잘 먹지도 못하는 외국 부인들과 함께 만드는 김치라 더욱 새로웠고, 한국을 알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행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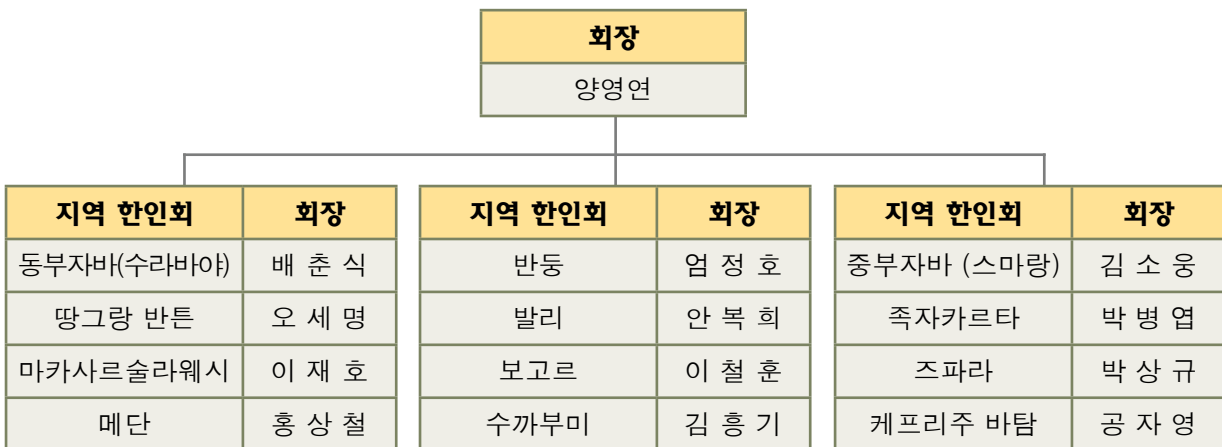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조직도



재인도네시아한인회총연합회



2016 한국문화관광대전, Korea Festival



한 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 문화와 관광 홍보를 위하여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4월 8일(금)부터 10일(일)까지 ‘2016 한국문화관광대전 (Korea Festival)’ 을 개최했다.



롯데쇼핑 에비뉴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한국방문위원회를 비롯하여 강원도, 부산, 울산, 경북, 제주도에서 공동 참가하여 현지 소비자와 여행업자들에게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봄꽃을 배경으로 한복체험 포토존 운영과 현지 주요 8개 여행사의 봄~여름 방한상품 현장 판매도 진행되어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을 실제 방한관광 수요로 확보했다.

행사 첫 날인 4월 8일(금)에는 현지 기자 설명회와 인도네시아 주요 여행사 50개사, 한국상품 담당자 약 150명을 초청하여 ‘Korea Night’ (갈라디너)를 진행하고 한국방문의 해 개요와 참가 지자체별 무슬림 대상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방한 외국인에게 인기 높은 ‘페인티즈 히어로’ 등의 너버벌 퍼포먼스 공연도 펼쳐졌다.

관광공사 김진환 해외마케팅실장은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61%가 35세 미만이며, 평균연령 29세의 성장 잠재력과 소비력이 높은 국가로 국내 여러 지자체들도 관광 시장 개척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며 “이번 행사에 한류 관심층과 일반 소비자는 물론 현지 주요 미디어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한국 문화 홍보와 방한 관광 확대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 행사에서는 최근의 한류 붐을 반영하여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가 펼쳐졌다. 또한 행사기간 중 매일 1시간씩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태권도 품새 시범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한국의 동계관광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된 ‘한국 상징물 얼음조각 경연대회’ 는 동남아 국가에서는 이색적인 퍼포먼스로 현지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정호승시인 초청 문학강연

지난 4월 11일 오전 10시,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회장 서미숙)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이 후원한 자카르타 남부에 위치한 우나스 대학(Universitas Nasional)에서 ‘내 인생에 힘이 되어 준 한마디’란 주제로 한국의 대표 서정시인인 정호승시인의 두 시간에 걸친 열띤 강연이 있었다. 우나스 대학 국제처장인 Sugargito 교수를 비롯한 한국어학과, 영문학과, 인니어학과 교수들과 3개학과 학생들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호승시인 초대강연 둘째 날인 4월 12일(화) 오후 3시,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회장 서미숙)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는 한인동포들과의 만남인 정호승 시인의 특별한 강연이 있었다. 이번 강연에서 정호승 시인은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시-사랑과 고통의 본질과 이해’라는 주제로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에서 심도 있는 강연이 펼쳐졌다.

3시 강연시간에 맞추어 서서히 객석의 청중들이 한명 두 명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디서 오셨는지 오래된 가방에 허름한 옷차림이었으나 예를 갖추고 오신 노신사부터 예전 국어선생님이었다

는 중년의 숙녀 분,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너무나 좋은 강의를 듣게 되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행사주체 회원의 한사람으로 가슴이 뿌듯했다. 한국대사 사모님과 한인회 임원들, 한국문화원 원장님까지 문화원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정호승시인의 강연에 뜨거운 열정을 담아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주었고 강연 분위기는 정호승시인의 목소리만큼 아늑하고 평화로웠다.

이번 강연 주제인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시’에서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에게 ‘사랑과 고통의 이해와 본질을 세계에서 유명한 분들의 짧지만 가슴에 와 닿는 문구를 적절히 예를 들어 가슴에 조용히 와 닿도록 강연을 해주셨다.

정호승 시인은 이번 강연을 통해 동서양을 넘나 들고 기독교와 불교 등 많은 종교를 함께 아우르며 중용의 중심에서 우리 삶에 사랑이라는 따뜻함을 편안하게 전달해 주었다.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에서 정호승시인과 함께하는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명사초청 문학 강연은 나에게 또한 많은 한인동포들에게 ‘사랑과 고통의 이해와 본질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사랑은 필연이며 살아가면서 적당한 고통도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정호승시인의 시만큼 아늑하고 의미 있었던 강연이었다. 우리 삶에서 사랑은 실천하면서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닌 견디는 것이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삶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 준 것 같다.

글 : 김은숙수필가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회원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 지부

문학지 등록1호 [인도네시아 문학] 출간 기념식



지난 4월 2일, 한국 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회장 서미숙)는 동인지 제 3집이며 문학지등록 1호인 [인도네시아 문학]을 출간하고 이를 자축하는 출간기념식을 가졌다. 작품집에는 총 17명의 문협 회원들이 시와 수필, 평론에 걸친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들을 게재하였고, 기획 특집으로 한국 서정시를 대표하는 정호승 시인의 초대 시 6편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2001년 문협 창단회원이기도한 이상기 시인의 특별기고 시가 함께 실렸다.

제 4대 인도네시아 문인협회의 수장으로 취임한 서미숙 회장(수필가,시인)은 이번에 출간된 [인도네시아문학]은 그동안 동인지 형태로 인도네시아에서만 발간돼 오던 (문학과 사람)에서 이번 [인도네시아문학]은 한국의 문화공보부에 정식 등록된 문학출판물로 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문인협회가 더욱 당당하고 새로운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남다른 감격과 소감을 밝혔다.

2001년 창단되어 2013년에 한국 문인협회 해외지부로 인준된 인도네시아 지부는 해마다 작품집 발간은 물론 시화전과 시낭송회, 명사 초청강연, 찾아가는 문학행사 등의 행사를 마련하여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문학적 정서를 함양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는 문화 예술적 혜택에서 소외된 지방 회원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자카르타 중심의 활동을 벗어나 인도네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문화 예술 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도 족자, 말랑, 끄디리 등의 지방에서 거주하는 문협 회원들이 작품집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는 문학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께 활동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인도네시아 문학]은 김성월(오지 여행작가)의 브로모와 바투 화산의 표지 사진을 시작으로 기획 특집 시와 회원들의 작품, 그리고 인도네시아 문인협회가 보내는 뒀 표지의 초대장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편집과 알찬 내용으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문학을 통하여 공동체적 의미를 찾는 데 훌륭한 발판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글 / 채인숙시인
(문협 언론홍보 담당)



KOICA 107기 해외봉사단원 인도네시아 입국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이 인도네시아에 파견한 신규 해외봉사단원 13명이 지난 4월 25일 자카르타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한국어교육, 미술교육, 농업, 요리,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인도네시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호관계 추진에 힘쓸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990년 우리 정부가 해외봉사단을 최초로 파견한 국가로,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총 560여명의 KOICA 해외봉사단원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활동하였다. KOICA는 금번 파견을 통해 술라웨시 림봉, 중부자바에 위치한 꾸

두스 지역 등 신규지역과 아울러 사회복지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 활동을 확대하게 되며, 앞으로는 인도네시아의 필요한 지역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한다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파견된 봉사단원들은 자카르타에서 8주간의 현지적응훈련을 받게 되며,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이들의 현지적응을 돕고, 임지 부임 후 봉사단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해외봉사단원 파견관련 부처와 지역의 수고를 적극 발굴하여 봉사활동이 필요한 인도네시아 곳곳으로 봉사단원 파견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제6회 국제어린이사생대회



4월23일, 싱가포르국제학교 (SIS, Bonavista소재) 에서 ‘제6회 국제어린이 사생대회’ 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한인미술협회(회장 신돈철)가 주최하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석기)이 주관하여 한-인니 양국 학생들이 자유로운 표현과 경쟁을 통해 각자의 재능을 개발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연대감을 쌓기 위한 행사로 마련되었다.

매년 다양한 국적의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200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들 300여명이 참가하여 각자의 창의력과 표현력을 마음껏 펼쳐보였다.

일찍부터 도착해 접수를 마치고 용기종기 자리를 잡은 아이들은 곰곰이 생각하는가 싶다가도 어느새 쓱쓱 순식간에 저마다의 생각을 색색이 꺼내 놓으며 스케치를 해 나갔다.

‘나의 왕국’ 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대상(1명), 금상(4명), 은상(12명), 동상(24명), 입선 (59명) 대상자들은 오는 5월 7일 한국문화원 다목적 홀에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주제는 현장에서 바로 진행하여 발표함으로써 공정한 대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미술협회관계자는 “미술대회를 통하여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워 재능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에 고마움을 전했다.

본 대회는 미술에 재능 있는 어린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어린이들을 통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제7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문학상

1. 주제 : 인도네시아 이야기
2. 원고 모집 기간 : 2016년 5월~7월 30일
3. 원고분량 : 산문 (A4 2쪽~ 5쪽) / 시 (2편)
4. 대상 : 학생 (만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일반인(성인)
5. 보내실 곳 : lovekoin@hotmail.com, ikcskr@gmail.com
6. 시상식 및 문화행사 (일시 추후발표)
7. 시상내역 : 일반부, 학생부 별도 시상

상명	학생부		성인부		시상내역
	수	시상	수	시상	
대상	1	주인니한국대사상	1	주인니아세안대사상	상장과 부상
최우수상	1	재인니한인회장상	1	재인니상공회의소회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	1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1	한*인니문화연구원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	1	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1	미정	상장과 부상
특별상	1	인도네시아 예술가상	1	인도네시아 예술가상	상장과 부상
장려상	1	한*인니문화연구원상	1	한*인니문화연구원상	상장과 부상

* 시상내역은 바뀔 수 있습니다.

후원: 재외동포재단/ PT.TAEWON INDONESIA/PT.PRATAMA ABADI

연간후원업체: PT.CIPTA ORION METAL


붙임 ; (글자모양=맑은 고딕, 글자크기=10, 행간=160%)

- ① 응모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기할 것
- ② 원고는 위의 지정된 e-mail로 응모할 것
- ③ 응모작품은 제출일 이전 미발표된 순수창작물이어야 함
- ④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표절로 판명된 경우 당선이 취소됨
- 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021) 2966-0825

사공경 0816-190-9976 sagong@hotmail.com

채인숙 0815-8479-7879 jemmachae@hotmail.com

한인니 문화연구원 www.ikcs.kr

297회 문화탐방

Kota Tua (제 7차 정기투어)

일시: 2016년 5월 14일 (토) 9:00-13:00

집결: 카페바타비아 진행: 안미경 수석팀장

신청: (SMS/KT) 안미경 수석팀장 081514216766

최우호 팀장 081290478845/ 0816-190-9976

회비: 30만루피아(비회원 35만) 점심 등 일체 포함

40회 열린강좌

자바의 영혼, 바틱

*일시: 2016년 5월 28일 (토) 10:00-12:00

*강사: 사공 경*회비: 10만루피아(간식 외)

*신청: 채인숙 부원장 0815-8479-7879,
08161909976, 밴드 댓글

*장소: 한*인니문화연구원(한인회문화회관 1층)

Jl. Gatot Subroto Kav.58

(Korean Embassy, Rumah Sakit Medistra 사이)

융합 아티스트 ‘하리 다르소노’ 한국 특강 “From Crazy to Creativity”

지난 3월 29일 서울예술대학교 마동 예술극장에서 인도네시아의 융합 아티스트 하리 다르소노 박사의 특강이 열렸다. “From Crazy to Creativity” 라는 타이틀에 맞는 콘셉트로 꾸며진 무대에서 그는 광기에서 시작한 창의력과 인생역경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표현하였다. 때로는 피아노 연주로, 때로는 패션쇼 형식으로 학생 모델들에게 예술작품을 입히며, 때로는 예술을 입고 있는 마네킹에게 말을 걸며 진행하였다.



열창으로 특강이 끝났으나 모두들 자리를 뜰 줄 모르고 무대 위에 전시된 하리 박사의 작품을 감상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으로 강연장은 열정이 넘쳤다. 이러한 것들 또한 융합예술로 느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하리 박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외쳤다.

I will, You can!!

이어서 31일 한림성심대학교(총장 우형식)에서도 하리 다르소노 박사를 초청하였다.

그는 “나는 보통사람보다 2개월 먼저 세상을 나온 조숙아였고 ADHD(과잉행동장애)를 가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결국 이뤘다” 며 “나보다 더 건강한 여러분도 꿈을 가지면 충분히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며, 학생들의 소질개발과 다양한 간접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하리 다르소노(67) 박사는 영국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저서 70권이다. 패션 디자인, 음악, 그림, 조각 등 문화 활동을 펼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자선활동을 하고 있다.한*인니문화연구원은 하리 박사와 함께 4월 1일,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을 방문하여 연구원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간담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에앞서 3월12일-16일, 한*인니문화연구원은 하리그룹과 함께하는 기차여행을 주최하였고, 이 기간 중, 하리재단 정기 후원자들과 마디운, 솔로에 있는 케어센터를 방문하였다.

(기사제공, 한*인니문화연구원)

하리박사는 ‘ADHD’로 인해 23살까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하나의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파괴적인 성격 때문에 6개의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고 한다. 자살을 4번이나 시도할 만큼 힘들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패션, 음악, 미술, 심리와 같은 여러 치료법을 병행하면서 치유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유덕형총장님을 무대로 모시고 자신은 제 3의 눈인 ‘직감’ 가지고 있다며 자신의 눈을 가리게 했고, 자작곡을 연주하였다. 이렇게 자신의 치료법 중 하나였던 피아노 연주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광기가 예술로, 창의력으로 승화된 과정과 마케팅에 성공하는 방법까지 강의하였다. 우리 또한 자신의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언급하였다.

PPT를 통해 자신이 치료받으면서 만든 작품들도 보여주었다. 하리박사의 작품은 모두 수작업으로 좌우, 앞뒤가 모두 다르다. “사람이 다 다른데 의상이 같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모두 소중한다.” 는 그의 예술관이 작품에 녹아있었다. 하리박사의 ‘그리운 금강산’ 연주와 함께 학생가수의



주한인니대사와 함께



연인들은 진주다

촬영장소 : 발리 꾸따 해변

사이즈 : 100 X 70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음산한 바람이 휘익~ 불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장대비가 화살처럼 내리 꽂히자
눈앞이 침침해지더니 아무것도 안 보인다.

바닷물이 살아서 퍼덕거리다가 파도가 되어
대문 밖으로 어린아이 도망치듯 해변으로 달아난다.

무슨 재주로 바다가 파도를 따라 잡을 수 있을까?

바닷물이 스며든 해변은 데칼꼬마니가 되었고
하늘과 바다 사이의 연인들은 조개속의 진주와 같다.



김성월/ 수필가. 방송코디네이터
hansol0508@daum.net

인도네시아의 소득 불평등은 개선되고 있는가?

글: 최진열 부장(KEB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 BPS)이 지난 4월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가 2015년 3월, 0.41에서 2015년 9월, 0.40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통계적으로는 201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소득계층간 불평등 격차가 완화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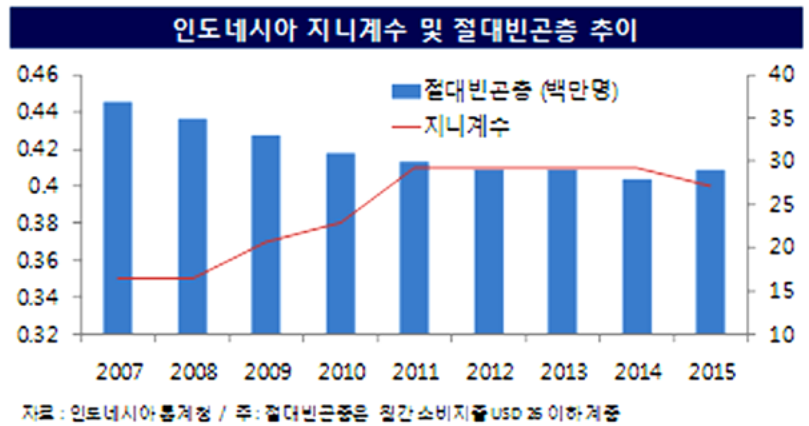
지니계수는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한 수준인 0과 완전히 불평등한 수준인 1 사이의 값으로 산출된다. 1,000원을 10명이 100원씩 나누어 가질 때 지니계수는 0으로, 1명이 모두 가져갈 때 지니계수는 1로 각각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35 이하면 빈부격차가 작은 편으로 해석되고, 0.4 이상이면 큰 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2015년 중 지니계수의 지표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소득분배의 불평등 및 소득 양극화의 개선을 실제로 체감하는 이들이 많지 않고, 또 지니계수의 장기추세 측면에서도 2015년 중의 개선이 추세적 개선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실제로 2015년 중 지니계수 개선이 빈곤층의 소득 증가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부유층의 소비 심리 위축 및 빈민층의 생계비용 상승에 따른 착시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BPS에 따르면 2015년 3~9월 사이 소득분포 상위 20% 그룹의 소비지출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2%에서 47.8%로 축소된 반면, 하위 40% 그룹의 경우 생필품과 관련된 소비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1%에서 17.45%로 확대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지니계수는 1990년대 평균 0.30

에서 2000년대 0.39로 급등한 이래 2011~2014년까지 0.41 수준을 유지해 왔다.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변 경쟁국들의 지니계수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하락해 온 것과 대비된다. 인도네시아의 과거 10년간 경제성장이 절대 빈곤층수를 감소시키는 데는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었으나, 분배 측면에서는 성장의 과실이 상위 20% 계층에 집중되어 나머지 80% 계층은 그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지니계수 목표치를 0.39로 정하고, 2019년까지 이를 0.36 수준으로 개선시키는 것을 장기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 등 직접적인 소득 지원 이외에도 소득 하위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프로그램 도입이 물론 필요할 것이다. 세계은행이 인도네시아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위생/교육/가족계획 프로그램의 제공,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공평/투명한 조세 제도 도입 등을, 단기적으로는 직무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노동자의 기술 수준 향상을 제안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유한)금성, 인도네시아 파트너 로펌과 합동사무실 개소식 가져



법무법인 (유한) 금성은 4월 6일 자카르타 릿츠칼튼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중견 로펌인 MR&Partners와 합동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간 금성은 국내 법률시장의 변화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을 모색해오던 중 국내기업들의 활발한 진출,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등을 감안하여 인도네시아 법률시장 진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성의 파트너 MR&Partners는 기업을 포함 정관계 등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고, 여타 로펌과는 달리 기업 컨설팅 서비스도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중견 로펌이다.

금성 하운홍 대표변호사는 “기존 국내로펌들이 해외진출하는 과정에서 겪은 성공과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5년전부터 인도네시아에 한국변호사로서 처음 진출하여 상주하면서 많은 경험과 능력을 보여준 이해왕 변호사를 영입하고, 역동적이고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현지로펌을 파트너로 선정하였다”면서, “앞으로 동남아, 서남아 등지로의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성의 개소식에는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를 비롯한 국내기업들의 현지법인 대표들과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무역부장관고문, 투자조정청 국장, 상공회의소 국장 등 다수의 정관계 인사 및 기업대표들이 참석하여 금성의 새출발을 축하해 주었다.



한인회 행사



2015년 10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주최하고 동부자바 한인회에서 후원한 '동부자바 한인 기업 간담..

공지사항	더보기	인도네시아 뉴스	더보기	각종 생활 정보	더보기
· [동포안내문] 5.1 노동절, 대규모 집회..	2016-04-27	· 4월27일 데일리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2016-04-28	· 수라바야 근교 골프장	2016-04-28
· [제18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 시행 안..	2016-04-11	· 4월26일 데일리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2016-04-27	· 기타 (여행사, 헤어샵, 맛사지). 작업..	2016-04-07
· [병무] 영주권자 등 자의병역이행자	2016-04-07	· 4월25일 데일리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2016-04-26	· 수라바야 한인식당	2016-04-07
· [2016년도 전통문화홍보 지원사업 수요..	2016-04-14	· 4월24일 데일리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2016-04-25	· 수라바야 슈퍼마켓	2016-04-07
· [2016년 한글학교 교사 강충형 연수과..	2016-04-14	· 4월14일 데일리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2016-04-15	· 수라바야 의뢰기관	2016-04-07
		· 4월11일 데일리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2016-04-11	· 수라바야 교육기관	2016-04-0

[동부자바 한인회 홈페이지 오픈]

한글 학교

금번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에서 오랜 숙원 사업이던 동부자바 한인회 홈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동부자바 한인회 행사 소식과 인도네시아 정보, 수라바야에서의 맛집안내 (한인식당, 현지식당), 수라바야 및 동부자바 관광정보, 영사과 민원 정보 안내, 교민장터 등 수라바야나 동부자바를 방문 하신 분들이나 우리 교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둘러 보시고 커뮤니티 페이지안에 방명록 (인사 나누기) 도 있으니 둘러본 소감도 한마디 남겨 주시면 업데이트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 게시글 남기시려면 회원 가입은 해주셔야 합니다. 회원 가입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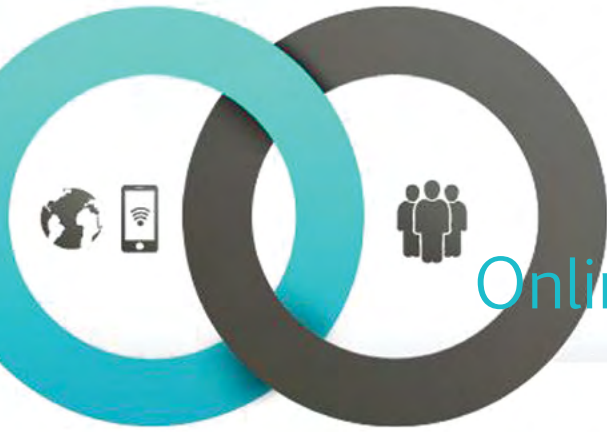
아직 카테고리나 게시판의 내용이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갈 예정이며 금주가 지나면 다양한 포털 사이트 에서도 검색 되도록 신청해 두었습니다.

동부자바 교민들의 관심과 배려속에 한인회 홈페이지가 교민 분들의 정보교류의 창이 되도록 계속 노력 하며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28일

-동부자바 한인회 회장단 일동-

www.surabayakorean.com



O2O가 세상을 바꾼다

Online to Offline



박상훈 (sanghoon.pak@gmail.com)
Worldwide Logistics Indonesia 법인장

안녕하세요? 한인뉴스를 통해 인사 드리고 있는 박상훈입니다. 첫 회에서는 최신 트렌드가 무엇인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변화에 앞서 가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터넷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O2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2O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어렵고(?) 생소한 단어가 나오면 당황부터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절대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O2O 서비스란 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보통 오투오라고 읽습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Online)을 통해서 실제 생활(Offline)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와 상거래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예는 GO-JEK과 UBER, GRAB이 아닐까 합니다. 고객과 우버, 그랩이 뭔지 아직 모르신다고요? 그래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 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대 후반에 인터넷의 발달로 미국의 아마존이나 한국의 옥션이나 지마켓처럼 상품을 주문하면 집에까지 배송해 주는 온라인 쇼핑몰(E-commerce)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몰도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상점에서 일어나던 상거래를 온라인을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O2O 서비스라 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다양한 분야의 오프라인 서비스들이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O2O 서비스의 발달에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인터넷의 발전과 GPS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의 기술발전이 그 근간을 이룹니다.

자카르타 거리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GO-JEK이나 GRAB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졌던 운송서비스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욱 쉽게 예약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기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O2O 서비스로 변하고 있습니다. O2O 서비스는 운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서비스에 도입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선식품 배송에서 청소 서비스, 미용 서비스에서 의료 및 법률 분야에 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KAKAO를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O2O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GO-JEK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O2O 서비스의 전개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O2O 서비스를 음식배달과 콜택시(대리운전) 두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O2O 기업은 KAKAO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GO-JEK을 뽑을 수 있습니다. KAKAO와 GO-JEK의 O2O 시장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온라인을 기준으로 하는가,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있습니다. KAKAO의 경우 5000만(해외 사용자 포함)이라는 사용자와 모바일 플랫폼인 카카오톡 그리고 카카오페이 등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삼아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반대의 형태로 인도네시아의 GO-JEK은 오토바이 운송이라는 명확한 오프라인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온라인과의 융합을 통해 O2O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업체의 향후 모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분은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O2O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인도네시아의 O2O서비스는 걸음마 수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가 인도네시아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서비스들 알아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치열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 음식 배달서비스 분야에서는 GO-FOOD와

FOOD PANDA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GO-JEK이 워낙 강력한 서비스라 GO-FOOD가 훨씬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식당의 정보와 예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 ZOMATO와 QRAVED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ZOMATO의 경우는 저도 자주 애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주목 받는 서비스로는 SMS 비서 서비스인 YES BOSS와 신선식품 배달 업체인 HAPPY FRESH가 있습니다. 두 업체 모두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 외 서비스로는 고객이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배달해 주는 TESS, 식재료와 레시피를 함께 제공해 주어 바로 집에서 음식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Black Garlic, 티켓예매 사이트 RAJAKARCIS 등 아직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많은 서비스들이 인도네시아의 O2O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O2O 서비스의 개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O2O 서비스의 방향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O2O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O2O 비즈니스의 영역은 더욱더 확대되어 갈 것이며, 인도네시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에도 깊숙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더 편하게 쓰기 위해 만든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이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핸드폰을 열고 제가 이야기 드린 위의 서비스 중 하나를 써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달에는 더 스마트한 내용으로 찾아가겠습니다.



프롬



(학생기자 JIS 김재호)



2016년 4월 23일, 자카르타 국제학교 (Jakarta Intercultural School)에서 일 년에 한 번씩 열리는 프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프롬의 컨셉은 ‘파리의 한밤’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롬 파티장을 마치 파리의 도심 한복판을 옮겨 놓은 것처럼 꾸며주며, 음악과 조명도 파리를 연상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특히 유럽 느낌이 물씬 나는 조명들과 소품들로 인해 프롬의 분위기를 좀 더 로맨틱하게 연출할 수 있었고 덕분에 프롬의 연인들에게도 남다른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참석한 학생들 대부분 파리 컨셉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날 프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프로그램은 프롬킹/프롬퀸 선발이었습니다. 평소 학교생활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매너를 보여준 학생을 뽑는 것으로 이메일로 사전 투표를 해서 프롬킹과 퀸을 당일 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프롬퀸은 12학년의 Rhode Kezia Thijssen, 프롬킹 역시 12학년의 Ernest Bethe IV였습니다. 압도적인 표를 얻으며 퀸과 킹으로 선발된 두 학생은 평소에 모범적인 언행과 친절한 모습으로 많은 친구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 프롬에서 뽑힐 퀸과 킹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프롬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코너는 포토부스에서 스티커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함께 한 친구들과 소중한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마음을 반영한 것으로, 각양각색의 포즈로 사진을 찍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행복감과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물론 노래가 나올 때마다 춤을 추는 코너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프롬은 갖가지 유쾌한 코너와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성공적인 파티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3 in 1’ 잠정중단 효과 미미...’ 4 in 1’ 놓고 반대 여론 거세

자카르타의 교통당국은 주요 도로에 ‘쓰리-인-원(3 in 1)’을 일시 중단했지만, 정체 완화 효과는 생각보다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 당국은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했다.

앞서 자카르타경찰당국은 지난 5일 출퇴근 시간 주요 정체가 일어나는 도로에서 탑승인원 3명 미만의 차량 운행을 규제하는 ‘쓰리인원’ 제도를 일시 중단했다. 중단 기간은 5월 14일까지로 연장됐다.

자카르타 교통부는 ‘쓰리-인-원’ 구간이었던 따린 대로~호텔인도네시아(HI) 로터리~스망기 구간은 계속해서 오후 4시~밤 9시를 중심으로 정체가 일어나고 있다며 정체완화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포-인-원(4 in 1)’ 제도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포-인-원’ 검토 소식에 반대여론 만만치 않아

시나가 자카르타교통국 부국장은 25일 “포-인-원을 도입하고 이를 오후 시간대에만 적용하는 등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히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퇴근시간에 한 해 적용하고, 기존 쓰리-인-원 시간보다 더 늘리면 교통정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존 쓰리-인-원 오후 시간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였다.

그러나 자카르타주 교통국 내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안드리 얀샤 자카르타교통국장은 지난 14일 “포-인-원 제도는 오히려 더 많은 조끼(Joki)들을 불러모을 뿐, 교통정체 해소방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자가 운전자가 기존 쓰리-인-원 시간대 조끼를 두 명을 태우는데 두당 3만 루피아씩, 총



6만 루피아가 들었다면, 포-인-원이 실시되면 세 명을 태워야 하므로 약 9만~10만 루피아가 든다.

이에 앞서 바수끼 주지사는 최근 “조끼가 출현하면서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돈벌이를 위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포-인-원은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통정체 사회적비용은 연간 150조 루피아

자카르타 교통국은 25일 인도네시아 교통 협회의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본 결과 자카르타 교통정체에 따라 유류낭비에서부터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협 등을 경제적 손실로 추산했을 때, 자카르타 혼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연간 150조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자카르타교통국의 안드리 국장은 “자카르타와 수도권 인근의 대중 교통을 정비하여 자동차 이용자 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이 밖에 상업 시설의 주차장을 확충하여 파크 앤 라이드(대중교통 환승)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영국 러시아 제치고 산업생산 10위 기록



지난해 산업생산 부분에서 12위를 기록한 바 있는 인도네시아가 영국과 러시아를 제치고 10위에 올랐다고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가 산업생산부분에서 순위가 오른 것은 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가운데서도 국내 수요 등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장을 계속 돌리고 제품들을 생산해냈기 때문”이라고 시암 유파드하야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수석 통계학자는 설명했다.

이어서 시암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한 일부 정책들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통제되었으며, 빈곤율이 완화되었다”고 덧붙였다.

UNIDO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당시 18%까지 치솟았던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은 최근 4.4%

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가난으로부터 2,500만 명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에서 제조업 부문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한다. 그러나 석탄, 팜오일 등 최근 낮은 원자재 가격이 제조업의 GDP 기여도를 낮추고 있다.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은 인도네시아 전체 GDP도 끌어내리고 있다. 작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4.79%로 근 6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취임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산업 부문 생산성 등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개발 등에 주력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관계자인 다야 위나르니 뿌지와씨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10대 생산공장에 이름을 올린 것은 그간 국내 제조분야 발전을 유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된 경제정책패키지의 효과가 본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기에 내년 보고서에서는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어 산업생산 부분에서 1위에 올랐다. 일본과 독일, 한국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인니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얼어붙은 수도권 주택시장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미국계 종합부동산개발 회사인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C&W)' 인도네시아 법인은 2015년 하반기(7~12월) 자카르타 수도권의 단독주택(대지포함주택) 수요가 지난해 상반기(1~6월) 1.7%에 비해 0.4%포인트 내려간 1.3%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시장이 경기침체로 주택구입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평했다.

C&W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자카르타 수도권의 단독 주택 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컸던 것은 중간 가격대(12억~16억 루피아) 매물로 전체 거래건수의 43.2%를 차지했고, 중저가격대(7~9억) 부동산 거래가 29.9%로 뒤를 이었다.

C&W는 중저가 주택 구매 희망자의 관심이 특히 높았던 부동산 가격대는 7억 5,000만~16억 루피아였고, 건물 면적이 45~96 평방 미터, 부지면적은 60~112 평방 미터의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 대출 금리 하락 기대

이 밖에도 중저가 주택 구입자의 78%는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모기지 대출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택 담보 대출 금리의 10%대 붕괴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주택 시장 활성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중앙은행이 모기지 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대출 금리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영은행에 대출금리를 10% 미만으로 낮추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이 현재 BI 기준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정책 금리로 오는 8월 '7일물 레포 금리(Repo Rate)'를 도입예정임에 따라 전문가들은 은행대출금리가 1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C&W 인도네시아 리서치 자문 부문의 알리 부장

은 "7일 물 레포 금리가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질 여부는 유동성이 충분한 수준으로 증가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 또 하나의 열쇠 '대출 비율'

주택 업계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와 함께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이다.

중앙은행은 2015년 6월에 LTV 정책을 실시했다. 70평방미터 미만의 단독 주택 구입에 처음으로 주택 대출하는 경우, 중전 대출 비율 상한은 70%였다. 이에 정부가 주택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비율 상한을 80%까지 확대했지만 여전히 시장관망세가 이어지며 이렇다 할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자카르타에서는 올해 주택 공급량이 대폭 늘었다. 8억~20억 루피아대의 자카르타 부동산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주택구입희망자에게는 여전히 주택 담보 대출 비율 규제가 무거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개발사들도 중저가 부동산을 활발히 공급하고 있지만 시장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개발사들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계약금 할인 및 할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조세 사면 법안에 주목

주택 시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는 현재 의회에서 심의중인 이른바 조세사면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자산과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공개 또는 신고를 한 경우, 본래 부과되는 가산세 등을 감면하거나 형사 고발을 면제하는 제도다.

다만 주택 시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모기지 대출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계약금 지불에 고민하는 주택구매자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경기가 좋아지면 주택 구매자가 높은 대출 금리도 받아들일게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인도네시아 국적취득



이번 호에는 여러건의 문의 사항중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Q1. 저는 5년전에 인도네시아 여성과 합법적인 결혼을 했으며 현재 4살된 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딸의 국적은 저와 같이 한국 국적인데 딸 만이라도 인도네시아 국적을 이제라도 취득할 수 있나요?

A. 예, 귀하의 딸은 인도네시아 국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2006년 제 12호인 국적법 제 4조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정의와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 제 4조 d항에 하기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anak yang lahir dari perkawinan yang sah dari seorang ayah warga negara asing dan ibu Warga Negara Indonesia.”

즉, 외국인 아버지와 인도네시아인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딸은 이 조항에 해당되어 국적신청이 가능합니다.

Q1. 그러면 제 딸은 한국 국적을 포기 안해도 인도네시아 국적을 이중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까?

A. 예, 18세되는 날까지 또는 18세 이전이라도 결혼을 하는 경우, 혼인일까지는 국적법 제 6조 1항에 의거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6조 3항에는 18세 되는 날 또는 혼인일로부터 가장 늦어도 3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여 각서를 해당 주 무관에게 제출하여 선택되지 않은 국적은 장관령에 정한 절차 및 요건에 의하여 상실하게 됩니다.

Q2. 저는 45세 남자로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PMA회사에서 10년째 계속하여 생산 과장과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국적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 법률 2006년 제 12호인 국적법 제 9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귀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상기 제 9조에는 귀화 국적취득의 자격 8개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18세 이상이며, 인도네시아내에서 연속 5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체류하였고 직업과 수입원이 있으므로 당연히 해당자 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국적 취득 요건이 점점 강화 되어 가면서 사전 단계인 KITAP을 신청시 회사의 등기 이사가 아니면 이민국에서는 자격이 안된다고 하며 회사 정관에 2명 또는 2명 이상의 등기 이사가 있을 경우 대표이사는 5% 이상의 지분이면 되는데 이사는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쉽게 처리가 된다고 하니 개별적으로 이민국 담당관과 면담을 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귀하는 국적법 상으로는 국적 신청 자격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전 단계인 KITAP 신청 시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만약 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면 PMA회사를 설립하여 다수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겸 대표이사로서 KITAP을 취득후 국적 신청을 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Q3. 저는 2015년 5월에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하여 KITAS를 소지하고 있는데 제가 KITAP 및 국적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 선생님은 아직 KITAP 및 국적신청 자격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민국 관련 규정에 의하면 결혼일로부터 2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했어야 하므로 선생님은 2017년 6월에 KITAP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ips 1.

Kewarganegaraan 과 Pewarganegaraan 과의 차이점 :

Kewarganegaraan은 법에 정해져 있는 국민 (Warga Negara)이 되는 자격을 말하며 Pewarga negaraan은 국민이 되는 자격의 하나로서 귀화에 의한 시민권 취득을 말함. 일반적으로 Naturalisas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Tips 2.

국적과는 무관한 내용이지만, 몇분이 문의한 내용인데 한국인을 Direktur Personalial로 KITAS를 받을 수 있느냐 인데 외국인은 Direktur Personalial 직책의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이주장관령 (KEPMENNAKERTRANS NO.40 TAHUN 2012)에 19개 직책의 외국인 취업금지 규정이 있으며 거기에서 영문 CEO로 번역되는 Kepala Eksekutif Kantor는 통상적인 최고 경영자를 칭하는 CEO와는 별개의 의미입니다.



작성 : 김 중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Indoyang & Partners
eskim@indoyanglaw.com



중국의 예술혼 국보라는 칭호를 받은 우관중



[제비 한 쌍] 1981 화선지 수묵채색 70x140

컬러의 홍수 속에서 절제된 먹빛의 그림이 시선을 잡아 끕니다.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우관중 화백의 [제비 한 쌍]은 중국 윈난성 남쪽, 차마고도가 시작하는 ‘강남’ 지역의 물가 전통가옥을 그린 그림입니다.

우 화백이 그의 말년에 그린 이 그림은 모든 형식의 그림을 돌고 돌아서, 유화에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을 수묵에서 찾아 실행했다는 그림인데, 은은한 수묵의 향기를 맡는 듯하여 물 빛이 회색임에도 참 맑게 보입니다. 물의 고장인 ‘강남’의 하얀 담장, 검은 기와, 서로 얽혀 있는 복숭아나무와 버드나무, 봄기운 자욱한 이 곳 경치는 결코 서양식 유화작품 속에서 찾을 수 없는 풍경과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흐르는 물의 회색 빛은 우 화백이 이야기하는 ‘강남’의 색채로서, 이 후 그의 작품에 자주 쓰이는 은회색의 바탕이 되고, 그의 예술의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의 때가 닳이는 듯 고요하고 차분해진다”, “동심을 몇 단계 넘어선 마음의 평화를 준다”, “제비 한 쌍은 보일 듯, 말 듯하지만 수묵이 어쩔 이리도 마음을 아늑하고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앞에서 두고 보면 모든 걱정 다 사라질 것 같다” 등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저 또한 언젠가 그의 작품 앞에서 있을 날을 꿈꿔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이렇게 남편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부인이 곁에 없었다면, 우 화백께서 그리도 오랜 기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실 수 없었겠지요. 저는 부부가 함께한 여러 장의 사진을 보며 사진에 담겨있는 은은한 부부애를 느끼게 되었는데, 우 화백은 예술가로서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행복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경매시장에서 거래된 우관중 화백의 그림은 우리 돈으로 무려 3,2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 화백은 자신이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최상의 작품 대부분을 국립 미술관에 기증하고 좁디 좁은 방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천재라기 보다는 성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화백은 늘 가난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헌신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성품이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활에 대한 요구를 낮출 수 만 있다면 최대한 생활에 대한 요구를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을 예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헌신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작품은 가정의 유산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 왔습니다. 욕심 없는 우 화백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아무런 잡념 없이 그의 작품에 푹 빠져들고 맙니다.

샘솟는 맑은 물 같고, 한 자락 불어오는 맑은 바람 같은 그의 작품들은 자연 그 자체와도 같습니다. 예술로 승화되는 여러 면모를 보여주는 분 이신 것 같아서 그냥 보면 그림이지만 알고 보면 그림 속에서 어떤 경지를 뛰어 넘은 것이 아닌가 하고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 하나 하나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맑은 향기가 날 수 밖에 없겠지요.

“저는 거짓말을 하면 죽은 뒤에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거짓말을 안 하면 죽어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처럼 우관중 화백은 뛰어난 예술가로서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격과 아름다운 삶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2010년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우관중 화백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가로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글:김현경(한인미협회원)



응답하라 2016 한인 문화 활동!

Korean Artist

제3회 ART FESTIVAL

문예총 종합예술제

2016년 5월 21일(토)~25일(수)

롯데쇼핑 에비뉴
LOTTE SHOPPING AVENUE

01 Exhibition

2016년 5월 21일(토) ~ 25일(수)
Opening : 5월 21일 4:30pm
장 소 : **Main Atrium**

- 초청 바자 : 아름다운 나눔 CHARITY BAZAR
- 초청 전시 : 전통 한지 공예 KOREAN ART PAPER CRAFT
- 초청 공연 : 자카르타 극동방송 합창단 CHOIR
인도네시아 공연단체 INDONESIA CULTURE

02 Performance

2016년 5월 21일(토) ~ 22일(일)
공 연(토): 5월 21일 5pm 장 소 : **Ice Palace**
공 연(일): 5월 22일 4:30pm
장 소 : **Main Atrium**



재인도네시아 문화예술 총연합회

초대합니다

제 3회 문예총 종합예술제 Art Festival에 초대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즐거운 감상하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You are invited to Art Festival of Korean Culture Association
Enjoy yourself at this event!



행사단체



국악사랑



한국 문인협회 인니 지부



루시플라워회



재 인도네시아 한인미술협회



색소폰동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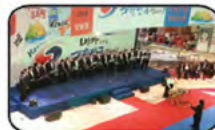
한국 서예협회 인니지회



한인 스트링오케스트라



아트메 여성합창단



자카르타 아버지양상블



자카르타 어린이합창단



월화차회



음악협회



한바패



헤리티지 코리아섹션



재인도네시아 문화예술 총연합회



건설 붐인 중동지역의
시장 개척에 매진할 것



정직한 자세로 내실을 기한다

PT. TOILON INDONESIA 제경중대표

2016년 4월 11일 한인뉴스 편집팀은 Tangerang Cikupa에 있는 PT. Toilon Indonesia를 찾아 제경중대표와 인터뷰를 하였다.

Q. 인도네시아 정착하게 된 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스토리

1994년 영국계 회사 Pentland Group plc의 브랜드, 'ellesse'의 Brand Manager로서 인도네시아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수라바야에서 첫 업무를 시작하였고, 이후 자카르타로 옮겨와 약 7년 정도 신발업계에 종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시장에서 산업 전반적으로 다용도로 사용 중인 가교 PE 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전문 분야인 신발과 가교 PE 폼(Cross-linked Polyethylene Foam)을 접목 시켜 용도개발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2001년 10월 12일 인도네시아 최초의 가교 PE Foam 생산라인을 갖춘 PT. TOILON INDONESIA를 Tangerang, Cikupa 지역에 설립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3개 라인을 갖추어 고객 수요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Q. PT. TOILON의 생산품 소개 및 매출규모, 회사경영 노하우 등

PT. TOILON INDONESIA는 가교 PE 폼 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주 용도는 건축 보온 단열재이며(Duct, Pipe 및 Roof Insulation), 자동차 내장재, 가방 부자재, 신발 Insole, 실내/외 매트, 소음차단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용도 개발 및 국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설립 이후, 매해 10%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최근에는 전자선 PE FOAM(Physically Cross-linked PE Foam) 을 인도네시아 최초로 생산 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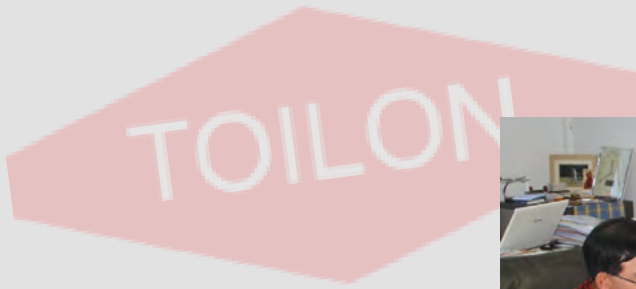
내실 위주의 정도 경영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Toilon이라는 Brand에 대해 고객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회사 목표이며, 현지직원 전원 정규직 고용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직원의 안정적 삶 영위에 우선 가치를 두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Q. 현재상황 (애로사항/ 올해 전망 및 계획)

아직까지 단열의 중요성 및 Energy Saving 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인도네시아에서 설립 당시에는 로컬시장 개발 및 판매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인도네시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해외로 눈을 돌려 중동지역(UAE, QATAR),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시장에서 판로를 꾸준히 개척해 왔으며 현재 까지도 전체 판매에서 50~60%정도 수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작년부터 Toilon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시장의 경우 임금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의 중부자와 지역 이전이 가속화 되면서 공장 신축 수요가 많아 단열재 시장 또한 기회가 찾아오고 있으며, 수출의 경우 2020년 두바이엑스포,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란 시장 개방 등으로 중동지역의 건축 경기가 조금씩 활기를 찾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경중사장은 대한체육회 부회장, 한국서예 협회인니지부장을 맡아 한인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큰아들 제환영부장과 둘째아들 제낙영 프로 골퍼는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잘 담당하는 제경중사장의 큰 보람이다.

Q. 향후 비전

신규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을 시작한 전자선 가교 품의 경우, 자동차 내장재가 타켓 시장입니다. 일본계 자동차 업체들의 인도네시아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내장재 시장도 동반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제품 개발 및 완벽한 품질 관리를 통해 일본계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며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Q. 한인사회에 하고 싶은 말

많은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세대가 어찌면 인니 진출 1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교민 사회가 1세대에서 2세대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세대 간 가치관 차이로 인해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만큼은 선배들이 앞에서 잘 이끌어 주고, 후배들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잘 이어 받으며, 특히 상호 존중을 통해 세대 간 갈등이 없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한인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6.25

“나라사랑 한마음”

학생 글짓기, 응변 및 UCC 경연대회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에서는
6.25 전쟁 66주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주제 : 아래 주제 중 택일
1) 6.25전쟁 2) 통일 3) 북한인권 4) 독도 5) 대한민국
- 응모대상 :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초·중·고등학생
- 응모기간 : 2016년 4월11일(월) ~ 5월31일(화)까지 (도착 기준)
- 응모수량 : 제한 없음
- 작품종류 및 규격 :

1	글짓기	A4 용지 2매 이내	글자 : 맑은고딕, 10 호
2	응변	응변 시간 4분 이내	원고와 함께 응변 동영상을 제작해 제출 (파일형식 : avi, mpeg, mp4, wmv, mov, swf)
3	UCC (동영상)	상영 시간 2분 이내	직접 제작한 동영상물 (파일형식 : avi, mpeg, mp4, wmv, mov, swf) 팀(5인 이내)으로 작품제출 : 입상 시 공동수상
		참고 UCC(동영상) : 1) 6.25전쟁 : 무명의희생 https://www.youtube.com/watch?v=OymPg8Th5IQ 2) 통일 : 그날이오면 https://www.youtube.com/watch?v=D8gV_2AoZ30 3) 북한인권 : 에그첼린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31425 4) 독도 : 아기돼지 삼형제, 독도는 한국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5I9KeE1QyU https://www.youtube.com/watch?v=GHxkxBBRpC0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제출 원고, CD, USB : 반납 불가)

제출	글짓기 : 원고	응변 : 원고, CD 또는 USB	UCC : CD 또는 USB
기재	소속, 학년, 이름, 전화번호 및 연락처		

- 제출처 : 우편 및 방문 (제출 원고, CD, USB : 반납 불가)

JIKS 재학생	초등 : 임성일 교감선생님	중등 : 조연 교감선생님
기타 학생	Gedung Wisma Intra Asia, LT2, Jl. Prof. DR. Seopomo NO 58, Jakarta, Indonesia (수신 : Ms.Nila)	

- 시상내용 : 상장 및 부상 (예, 최우수상 : 일천만루피아 상당)

1	글짓기	우수(1명), 장려(1명), 노력상(1명) 초, 중, 고등부 : 각각 시상	최우수상 : 1명 (대한민국 대사상)
2	응변	우수(1명), 장려(1명), 노력상(1명) 초, 중, 고등부 : 각각 시상	
3	UCC (동영상)	우수(1명), 장려(1명), 노력상(1명) 초, 중, 고등부 : 각각 시상 (우수한 작품이 없을 시, 일부 당선작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우수상 & 장려상 : 다수 (한인회장 및 단체장상)

- 심사규정 : 상장 및 부상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홈페이지에서 동영상물(응변 & UCC)의 인기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취득한 해당점수를 심사위원단의 점수에 추가

최우수상 : 기념식 순서 중에 각 작품종류 별 우수상 대상자 전원(총 9명)의 글짓기 낭독(3편), 응변실기(3편), UCC상영(3편)을 통한 현장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

- 수상작 발표 : 2016년 6월 20일, 홈페이지에 공지 (일자 변경가능)

- 시상식 : 6.25전쟁 66주년 기념행사

일시	2016년6월25일(토), 오전 10:00~11:00
장소	한국문화원 Equity Tower 17FL, SCBD Lot 9, Jl.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 준수사항 :

- * 응모작품은 미발표된 창작물이어야 함(타 공모전에서 수상경력 있는 작품 불가)
- * 음란물, 폭력물, 지적재산권 침해, 타인의 명예훼손작품 불가
(추후 저작권 분쟁 발생 시 법적책임은 응모자가 부담)

- 유의사항 :

- * 응모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 당선된 작품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보장되며, 본 단체는 당선작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당선된 작품은 전문가를 통하여 크기, 내용, 구성 등이 수정될 수 있음.
- * 당선된 작품은 각종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응모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표절로 확인된 작품은 당선발표 이후에도 당선이 취소되며, 상장 및 부상은 환수됨.

- 대회운영 및 문의처 :

주관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이메일 : kff_jkt@naver.com	홈페이지 : www.kff.or.id
	전화 : 0811 917 7007(정찬우 총무), 0811 888 9609(최석일 차장)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꼭 기억해 두세요

- 재난발생 시 대피장소 (대피소등)
 - 대책본부에서 지정한 대피소와 친척집 등 2곳을 정합니다.
 - 가족이 헤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 1, 2차 대피소 및 가족의 연락처
 - 대피한다는 사전대피 개념이다.
- 대피소까지의 도로(탈출로)에 대한 정보
 - 도로의 포장상태, 침수 가능성, 2차 대피로 등에 대해 사전 정보 입수 및 파악
- 자가지역의 대피 계획 숙지 (대피수첩, 대피 지도의 숙지)
- 대피 시 이웃의 대피 여부를 확인
 - 이웃의 자력대피가 불가할 경우 도와주거나 신고하기

손에 들고 가야 할 것

-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반드시 비상용 백(Go Bag)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비상용 백에는 대피 시에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두십시오.
- 각 가족 구성원의 비상용 백을 배낭이나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처럼 튼튼하고 휴대가 편리한 가방에 넣어두십시오. 비상용 백은 집에서 나갈 때 쉽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연중 언제나 반드시 준비해 두십시오.
- 대피준비물
 - 비상식량, 음료수, 손전등, 건전지, 성냥, 라이터, 휴대용 라디오, 비상의료, 속옷, 병따개, 화장지, 수건, 구급용품, 귀중품(현금/보험증서), 안경 등(생활용품), 생리용품, 종이기저귀
 - 귀중품 및 중요한 서류 : 중요한 서류는 방수가 되는 비닐에 보관
 - 여분의 자동차 키와 집 열쇠 세트
 -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현금
 - 편안한 신발, 가벼운 우비, 얇은 담요, 보온력이 좋은 옷 등
 - 가능하면 평소에 가족수대로 비상용 가방을 준비
 - 가족연락처, 행동요령, 지도 등이 있는 재해지도 또는 수첩



집에 비치할 것

최소 3일동안 자립적으로 생존하기에 충분한 생필품을 가정해 비치해 두십시오. 가급적 이 품목들을 찾기 쉬운 별도의 용기나 특별한 찬장에 보관하십시오. 이 생필품은 비상용이라는 점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식량은 가구별로 15일 ~ 30일 분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
- 가공식품
 - 라면, 통조림 등 적정 소요량
 - 정부는 양곡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므로 지나친 사재기를 하지 맙시다.
-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부탄가스
 - 중요한 서류는 방수가 되는 비닐에 보관
- 침구 및 피복 : 담요, 따뜻한 옷, 비옷
- 기타 필요한 물품 : 물, 응급약품, 개인위생용품(비누, 치약, 칫솔, 수건 등), 라디오, 배낭, 휴대폰, 전등, 양초, 성냥(라이터), 비누, 소금, 여성 위생용품, 배터리, 신발, 장갑, 소화기, 기타물품 등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 가정용 비상약품(비상구급상자 점검목록)
 - 의약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 의료기구 : 핀셋, 가위
 - 위생재료 :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 마을 공동 준비사항
 - 비상대피시설 : 지하실, 대피호
 - 응급복구물자 : 마대, 끈, 말뚝, 삼, 곡괭이, 사다리
- 화생방전 비상용품
 - 방독면 또는 비닐, 수건, 마스크
 - 보호 옷, 보호두건 또는 비닐 옷
 - 방독(고무)장화, 방독(고무)장갑

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을 설명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요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용품 준비] (국민안전처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국민안전처)

제18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재외동포 문학육성을 위하여 2016년 「제18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전 세계 170여개국 720만 재외동포 대상으로, 문학적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한민족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모국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문학상 공모전에 재외동포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주최 및 주관 : 재외동포재단
후원 : 외교부

1. 응모 자격

- 성인부문
 - 거주국 7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장기 체류자)
- 청소년부문
 - 거주국 5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
 - 초등학교 : 만7세 이상 만13세 미만의 재외동포 청소년
 - 중·고등학교 :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재외동포 청소년
 - ※ 역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는 응모 불가 (가작, 장려상 수상자는 응모 가능)

2. 공모 분야

구분		분야	출품편수	1편당 원고분량	공통사항
성인		시	3~5편	제한없음	※ 미발표 한글 창작물 ※ 원고분량 80%미만 또는 150% 이상은 탈락
		수필	3편 이내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작품응모서식 4매 내외)	
		단편소설	3편 이내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작품응모서식 13매 내외)	
청소년	중·고등학생	글짓기	3편 이내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작품응모서식 3매 내외)	
	초등학생	글짓기	3편 이내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작품응모서식 2매 내외)	

※ 청소년부문은 산문 및 운문 형식 제한 없음

※ 작품응모서식은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 배너창에서 다운 가능

3. 작품 주제

- 성인부문 : 자유주제
- 청소년부문
 - 내가 다니는 한글학교, 내가 사는 지역(동네) 소개
 - 한국(모국) 방문 또는 한국어 학습 경험담
 - 자랑스러운 한국인, 전반적인 한국 및 재외동포에 관한 주제
 - 기타 자유로운 주제(현지 생활 상에서 보고 느끼는 재외동포 관련) 등

그 밖의 사항은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김나현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 전 화(tel.) : 82-2-3415-0186
- 팩 스(fax.) : 82-2-3415-0198
- 이메일(e-mail) : culture@okf.or.kr

작품 접수기간 : 2016. 3. 18.(금)~5. 17.(화),

한국시간 기준

※ 마감일 엄수 요망(우편 접수의 경우, 5월 17일자 도착분에 한함)

영주권·질병치유 등

자원병역이행자 체험수기 공모



공모 기간 2016년 4월 1일(금) ~ 2016년 5월 31일(화) 61일간

공모 대상 -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질병치유 및 학력변동자로서
현역병으로 자원 입영한 병사와 그 가족

공모 주제 - 스스로 원해 군복무를 하면서 느낀 병역체험담을 국민과 함께
나누면서 병역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내용

공모 분야 등 - 분야 : 산문 부문, 만화(카툰) 부문
- 분량 : 산문 부문은 A4용지 3~4매, 만화 부문은 12칸 이내

시상 내용

구 분	산문 부문		만화 부문	비 고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질병치유 및 학력변동자		
최우수상	1명	1명	1명	병무청장 상장 상금 각 30,20,10만원
우수상	2명	2명	2명	
장려상	4명	4명	3명	
입 선	10명	6명	4명	상금 각 5만원

응모 방법 - 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5호
병무청 자원관리과

- E-mail : way07@korea.kr

※ 필수 기재사항 : 원고 제목, 성명, 소속(전역)부대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부대 포함)

수상작 발표(예저) 2016년 7월 1일(금) 병무청 홈페이지(개별통보)

문의처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756)



이 동균 / 수필가
andersonlee333@gmail.com

현대는 여러 첨단 의학기기의 발달과 의사들의 끈질긴 노력 및 신약의 발명으로 인간의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치료하기 어려웠던 병들이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완치되거나 몇 년 동안이라도 생명을 연장해 주기도 한다.

요즘은 악성종양, 즉 암과 같은 질병을 MRI, PET 등의 정밀기를 이용하여 쉽게 병을 진단하고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해 주고 있다. 그래서 과거 수십 년 전에는 60세정도만 되면 노인으로 취급해서 예우를 해주기도 했으나 현재는 80세 정도는 되어야 진정한 노인으로 대우해 준다.

대개는 직장생활이든지 자기사업을 가졌던 사람이 대략 60~70세 정도에 현직 생활을 마감하고 은퇴를 한다고 해도 아직 인생의 1/3 정도라는 긴 여정이 남아있다.

가족과 나 자신의 부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어졌던 일, 늘 고단하고 바쁜 사회생활에 얽매었던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을 정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2의 인생'

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남은시간을 건강하고 안락하게 보내기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기 좋고 물이 깨끗한 곳에서 전원생활을 하는 것을 원한다. 그것은 사람이 오래 살려면 상식적으로 사람의 몸은 70%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람이 호흡할 때나 물을 마실 때 맑고 깨끗한 물을 섭취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전원적인 생활을 누구나 한번쯤은 꿈꾸어 본적이 있을 것이다. 나도 좀 젊은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한동안 여러 번 해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으니 푸른 초원의 필드에서 양치기소년처럼 마음껏 자연을 즐기며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고 가끔은 동네의 호수에서 낚시도 하며 짜릿한 맛 집도 찾으며 좋아하는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멋진 글씨도 써보고 흥겨운 유행가 노래도 반주 없이 마음껏 불러보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며 그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금 일찍 은퇴한 선배가 사는 백두대간의 산줄기와 가까운 선배 집에 며칠간 머물면서 여러 가지를 느껴보았다. 그의 빨간 지붕

의 아담한 이층집 앞에는 맑고 큰 저수지가 시원스레 펼쳐져 있었고 집 뒤에는 적당한 높이의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었으며 오른쪽 옆에는 밭과 논으로 되어 있어 가슴이 탁 트이면서도 아늑해 보였다. 이른 아침이 밝아오면 저수지의 물안개가 산을 휘감아 돌아서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감상하는 느낌을 자아냈다. 항상 눈을 뜨면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나무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다양한 모양의 색깔과 꽃들이 피어있어서 마치 동화속의 세계를 연출하고 있었다. 또 집 안쪽에는 적당한 크기의 텃밭이 있어서 여러 종류의 채소들이 파란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중 채소밭의 골칫거리는 잡초였는데 제초제를 사용하면 간단하지만 제초제를 사용하면 토양이 황량하고 험벗은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잡초를 손으로 일일이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아무리 뽑아도 잡초는 계속 올라오는데 가끔 잡초에도 드문드문 사람들이 즐겨먹는 것들도 자라고 있었다. 이름 하여 냉이, 민들레, 씀바귀, 쑥, 익모초 등 그 외에 이름 모를 먹거리들이 파란 잎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데 잡초들도 어느 정도 일정한 물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일부는 스스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잡초들은 사람과 달리 결코 자신만의 욕심을 채기려 하지 않는다. 사람의 욕심은 바닷물로도 채울 수 없고 욕심이 커질수록 부족함만 더 커지게 된다. 즉, 잡초는 어느 시기가 되면 열매를 맺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여 후대의 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비워주는 마음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비워준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비워주는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자기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험하고 각박한 시대를 살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더 좋은 환경을 추구하려는 욕심 때문에 조그만 자기희생도 매우 꺼려하고 아까워한다. 하나를 남에게

주면 서 너 개를 얻어야만 만족하는 마음에 더 익숙해 있다. 그러나 자연은 언제나 한결 같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묵묵히 자기희생을 실천하는데 변함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머리를 굴리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어쩌면 사람이 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 이익을 추구한들 어차피 정해진 인생 안에서 한정된 삶인 것이다. 죽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인 것이다.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살아생전에 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우며 폭포처럼 비가 쏟아진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비가내리면 비는 자기생명을 다하면서 땅에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나도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여정에서 얼마나 마음을 비우고 살았었나 생각해 보았다. 많은 욕심 때문에 캄캄한 밤을 하얗게 지새운 적도 있고 뜨거운 눈물과 후회로 나 자신을 가혹하게 학대해 본 적도 있었다. 그래도 가끔씩은 하늘이 주어진 사명에 따라 내가 맡은 소임을 다하는 봉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다. 앞으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더 많은 경험과 미래에 대한 시각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을 쌓고 싶다. 무엇이든 배우는 시간에 매진하고 주어진 삶이 남아있는 동안 내 자신을 비우는 마음으로 미래와 후대를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것을 전해주고 싶다.

지난 3 개 월 동안 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소속 작가로서 <행복에세이> 릴레이연재 선두주자로 한인뉴스 독자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짬짬이 글을 쓰다 보니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인도네시아지부 회장님과 제 글을 읽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몰랐던 세계사

선거의 역사

투표와 선거는 동의어가 아니다



1917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여성참정권 시위

1913년 6월 4일 영국 런던 남부의 엡섬다운스에서 열린 경마대회에서 한 여성이 국왕 조지 5세의 말 앞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말과 부딪힌 여성은 중태에 빠졌고, 나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밀리 와일딩 데이비슨(Emily Wilding Davison)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말에 뛰어 들기 전 “여성에게 참정권을!” 이라고 외쳤습니다. 선거가 무엇이기에, 투표권을 갖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는 목숨까지 바친 것일까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갖기 위해 많은 이들이 흘렸던 땀과 피를 생각하면 숙연해지지만,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어떻게 선거제를 이용했을까요. 선거와 투표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아테네의 제비뽑기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가 되는 제도는 고대 로마와 그리스, 이슬람 초기의

아랍 등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수의 대표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다수의 뜻을 전달하거나 실행하는 ‘일꾼’에 가까웠죠.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일꾼을 자처하지만 선거 때마다 낮은 투표율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원지로 꼽히는 그리스 아테네에선 어떻게 대표자를 뽑았을까요. 정답은 ‘제비뽑기’입니다. 기원전 4~5세기 아테네의 정치·사회 기구는 민회와 500인 평의회, 민중법원, 행정직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그중 민회는 법안을 표결하고 고위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모두 자원자로 꾸려졌습니다. 민회에 모인 사람들 중 제비뽑기로 선발해 500인 평의회를 구성했는데 이들이 법안을 작성하고 행정직을 관리했으며 외교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금의 입법부 역할과 비슷합니다. 사법부에 해당하는 민중법원도 시민들 중 제비뽑기로 6,000명을 뽑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그날그날의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지금의 배심원제와 비슷하죠?



투표 장면을 묘사한 고대 로마의 동전

행정직은 시민들 중 역시 제비뽑기로 뽑힌 약 600명의 공무원과 민회에서 뽑은 100명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행정부 처럼 실제 행정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행정직 중 군사 분야와 재정 분야만 적합한 전문가 후보를 두고 선거를 해서 뽑았습니다.

법과 정책을 만들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을 모두 다 ‘우연’이라는 변수를 통해 뽑았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음 제비뽑기를 통해 공무원이나 대표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분쟁도 없었다고 합니다.

벨기에의 문화사학자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는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에서 “제비뽑기와 교대책임제야말로 아테네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는 제비뽑기로 선출된 자들에게 할애된 자리의 임기가 1년에 불과했고, 한 번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재임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 때문에 시민들은 모든 수준에서 자리를 내어주고 물려받아야 했다. 말하자면 최대한 많은 수의 시민들을 나라 살림살이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평등을 구현하려 했던 것” 이라고 썼습니다. 제비뽑기가 원시적인 선거제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적합한 제도였다는 거죠.

제비뽑기는 금세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베네치아(1268년~1797년), 피렌체(1328년~1715년)에서도 방식과 비율은 조금 다르지만, 주요 공직자를 뽑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활용했습니다. 베네치아에선 최고 귀족 가문들의 치열한 경쟁을 막는 방법으로 나무 공을 뽑아 지도자를 선출했다고 합니다. 귀족 가문들이 모여 나무 공에서 어느 가문의 이름이 나오느냐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장면을 상상해 볼까요.

레이브라우크의 분석을 보면 제비뽑기를 활용한

기원전 4~5세기의 아테네와 르네상스 시대의 베네치아, 피렌체는 모두 그 사회의 부와 권력, 문화가 정점에 도달해 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아테네에서 제비뽑기를 위해 쓰였던 비석

2016년 2월 기준 인구 5,155만5,409명, 유권자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에선 불가능한 일로 보이신다구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비뽑기를 했던 아테네 시민의 수는 최소 3만 명~최대 6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확실히 인구 수가 적으면 뜻을 모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참여하는 것도 수월하겠죠. 그렇지만 제비뽑기가 먼 옛날 옛적에만 있었던 ‘구식’ 선거제는 아닙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에서도 2000년 이후 각 주에서 제비뽑기로 주민대표를 뽑는 정치실험을 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고 여론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시작된 정치실험이었습니다. 소규모였고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이 나라들이 보통선거제의 대안으로 수천 년 전 고대 국가에서 시행된 제비뽑기를 떠올렸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공화국의 탄생과 보통선거

누구나 한 표를 평등하게 행사하는 지금의 투표 형태는 18세기 프랑스 혁명 후 공화국의 탄생과 함께 널리 퍼졌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왕정을 무너뜨렸고 모든 권력은 민중에게서 나온다고 선언했죠.



영국에서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을 위해 여성사회정치연합(WSPU)을 만들고 운동에 나선 에니 케니(왼쪽)와 크리스타벨 팡크허스트(에멀린 팡크허스트의 딸)

민중의 뜻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인 1표제라고 믿었습니다. 후보를 정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일을 정해 투표소에서 원하는 후보의 이름을 표시한 종이를 투표함에 던지는 방식이 오랫동안 널리 쓰였고 지금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연령만 지나면 누구나 동일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보통선거’가 정착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시민대혁명을 일으킨 프랑스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미국도,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많은 나라들이 처음에는 제한적인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평등한 한 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처음에는 일정 재산이 있는 백인 성인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납세능력이 있는 21세 이상 백인 남성만 투표할 수 있었던 미국에선 1870년이 되어서야 흑인 남성도 투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고, 여성은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920년에서야 수정헌법 19조를 통해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미국 여성들은 백악관 앞에서 몸을 쇠사슬로 묶는 시위를 하며 투쟁했고 많은 이들이 투옥되었습니다.

영국 여성의 참정권 운동은 1860년대부터 조직화됐습니다. 이전에도 참정권 운동은 있었지만, 과거의 운동이 평화로운 집회와 서명을 하고, 청원서를 돌리는 정도였다면 이때부터는 보다 과격한 투쟁도 불사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영국 참정권 운동의 상징인 에멀린 팡크허스트(Emmeline Pankhurst, 1858~1928)가 설립한 여성사회정치연합(WSPU) 회원들은 유리창 깨기와 방화, 투옥, 단식투쟁까지 했습니다.

영국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돈과 여가를 가진 지주층에게만 부여됐다가 산업혁명으로 확대된 도시 선거구의 유권자들을 포함해 다수의 중산층이 1832년 참정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산층의 기준은 ‘1년에 최소 10파운드를 집세로 내는 가구주’를 뜻했습니다.

영국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앞서 소개했던 에밀리 와일딩 데이비슨의 죽음이었습니다. 데이비슨은 목숨을 걸고 참정권을 주장했지만, 당시 귀족 남성들은 데이비슨의 사고를 경마대회를 지연시킨 골칫거리 정도로 치부했답니다. 분노한 여성들이 데이비슨의 장례식장에 몰려들었고, 그의 장례식은 거대한 여성 참정 시위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여성들과 사회운동가, 인권활동가들이 여성 참정권 운동에 참여했고 에멀린 팡크허스트 등 뛰어난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결국 1928년 보통선거가 제도화됐습니다. 여성에게 가장 먼저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는 뉴질랜드로 1893년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처음 부여한 나라는 핀란드로 1906년이었습니다. 프랑스는 1944년, 이탈리아는 1945년에서야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1948년 제헌과 함께 한 번에 보통선거제를 정착시켰습니다. 이란은 1963년, 스위스는 1971년 보통선거제를 도입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는 사우디로 2015년 12월, 건국 이래 처음으로 여성들이 투표장에 나와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날 총 3,159명의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정부가 임명하는 3분의 1을 제외하고 2,106명의 의원을 투표로 뽑았는데, 선거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여성 20명이 의원직에 당선됐습니다.



별별 선거

조금 특별한 선거 이야기도 해볼까요. 2016년 현재 국민에게 참정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몇몇 독재국가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겠지만, 지금 소개할 나라는 바티칸 시국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작은 나라, 세계 가톨릭의 중심 프란치스코 교황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바티칸 시국은 로마에 통합됐다 1929년 독립했습니다. 면적 0.44km, 인구 1,000명의 이 나라 시민들은 선거할 권리도, 선거에 나갈 권리도 없습니다. 바티칸 시국 최고의 지도자인 교황은 추기경들의 선거를 통해서 뽑히기 때문입니다.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는 교황이고 교황이 선종하거나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혔을 때에만 선거를 통해서 후임자를 뽑습니다.

바티칸 시국의 국장(國章)

교황을 뽑는 선거 ‘콘클라베’는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서 은밀하게 이뤄집니다. 콘클라베는 ‘열쇠가 있는 작은 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황은 추기경단에서 뽑는데, 선거에 참여하는 추기경단은 비밀유지각서를 쓰고 투표에 임합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과거에는 동시에 교황의 이름을 불러서 만장일치로 한 사람을 불렀을 경우 인정하는 목소리 선거, 추기경들의 선거위원회가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위원회 선거 등의 방법도 있었지만 사라지고 투표 선거만 남았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득표가 나올 때까지 투표는 계속되고 투표가 끝난 뒤에는 투표용지를 태워 결과를 밖에 알립니다.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면 아

직 교황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흰 연기가 나오면 교황이 결정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선거기간이 되면 모두가 연기 색깔을 주목하며 기다립니다. 2005년부터는 교황이 결정된 경우 흰 연기와 함께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종소리도 울립니다.

콘클라베가 열리는 시스티나 성당

중미의 작은 나라 코스타리카에선 어린이·청소년 투표를 실시합니다. 어린이 투표는 5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들이, 청소년 투표는 중고교생들이 참여하는 투표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선거하는 날, 수도 산호세의 어린이 박물관(과거의 교도소를 개조해 만들었습니다)의, 성인 투표소와 똑같이 만들어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어린이들의 투표 결과는 방송을 통해 어른들의 개표방송 때 함께 공개됩니다.

물론 어린이들의 투표는 실제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코스타리카는 만 18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이 투표를 실시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하고, 정치인들에겐 미래의 유권자들의 선택에 대해 알려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네요.

청소년 투표는 실제 선거보다 3~4개월 먼저 실시되는데 각 학교에서 성인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열립니다. 학교별로 개표결과를 집계하는데 방송을 통해서 공개되진 않지만, 중앙선관위가 개표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결과도 각 정당으로 통보됩니다.

투표와 선거와 민주주의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정치를 잘 하는 것과 선거에서 이기는 능력도 다르죠. 언젠가부터 우리 정치는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능력만을 정치의 중심에 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는 1762년에 쓴 명저 <사회계약론>에서 “영국 국민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한참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단지 의회 구성원을 뽑는 선거 기간뿐이다. 일단 의원들이 선출되는 즉시 영국 국민은 노예가 되어버린다.” 라고 썼습니다. 루소의 비판은 2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따끔하게 들립니다.

(장은교/ 경향신문 기자)



인도네시아 민법(4)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7. 상속법

인도네시아에서 상속은 크게 분류하여, 부족의 관습법에 의한 상속, 이슬람법에 의한 상속, 민법에 의한 상속이 있다. 부족의 관습법에 의한 상속은 부족 혹은 지역주민의 관습법에 따라, Minangkabau, Batak, Melayu, Jawa, Dayak, Makasar, Toraja, Dani 등 300여 부족이 있다고 알려진 인도네시아 각 부족의 관습법에 따르고 있으며, 무슬림은 이슬람법에 의한 상속을 따르고 있으며,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민법의 상속법을 따르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적지 않은 인원의 한인동포들의 대부분은 민법의 상속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법상의 상속을 설명한다.

7.1. 상속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사망자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이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권리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의무도 물려받는다. 즉,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채무도 물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신전속상의 권리와 의무는 물려받지 못한다.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물려주는 사망자를 “피상속자”라 하며,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개시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7.1.1. 재산적 권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권과 점유권은 모두 상속의 대상이다. 특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상속되며, 채권도 상속된다. 그러나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 “예”를 들면 고용계약서, 영화출연계약서, 저술계약서, 결혼약속 등은 상속되지 않는다.

7.1.2. 재산적 의무

빌린 돈, 물건 값, 사용료 등 재산적 의무는 상속되나 신원보증채무는 상속되지 않는다.

7.1.3. 계약상 법률상의 지위

대리인, 직원, 계약상의 지위는 계약이나 계약상 법률상 지위에 따라 상속 여부가 결정된다.

7.1.4. 민사소송 당사자의 위치

민사소송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소송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계수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하다.

7.1.5. 일신전속권은 상속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죽으면 소멸한다.

7.2. 유언장(Testament) 상속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상속하는 것이 유언장에 의한 상속의 본질이다. 유언장에 의한 상속은 법률에 의한 상속에 우선한다. 재산의 주인이 자기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중시한 상속 방법이다. 법적으로 유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성인 혹은 기혼자로 제한하고 있다. 18세 이상이거나 18세 이하일지라도 기혼자는 성인으로 간주되서 법적으로 유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유언장은 인정받지 못하며, 유언장은 반드시 한 사람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기 혹은 강제로 쓰여진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피상속인을 살해한 사람,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횡령하거나 없애버린 사람은 유언장에 의해 여하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작성자는 임의로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유언장은 서면 혹은 구두로 가능하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7.2.1. 친필유언장(Wasiat Ologaphis)

피상속자가 친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2명의 증인의 서명을 받아 공증인에게 보관해야 한다. 밀봉해서 맡길 수 있고 개봉 상태로 맡길 수도 있다. 작성자는 하사라도 유언장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 혹은 삭제할 수 있다.

7.2.2. 일반유언장(Wasiat Umum)

일반유언장은 피상속인이 공증인에게 유언 내용을 진술한대로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장이다. 증인 두명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유언장 형태이다.

7.2.3. 비밀유언장(Wasiat Rahasia)

비밀유언장은 피상속자가 친필로 쓰거나 다른 사람이 대필로 쓰고 밀봉하여 증인 네 명의 입회 하에 공증인에게 맡기는 유언장이다. 피상속자가 사망하면 공증인은 비밀유언장을 법무부 산하 유산관리국에 인계하고 유산관리국에서 비밀유언장을 개봉해야 한다. 인계 및 개봉 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7.2.3. 기타 유언장

민법은 상술한 형태의 유언장 이외에 피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예” 를 들면, 해외 거주자, 선원, 전쟁터의 군인, 전염병 창궐지 등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3. 법정 상속

법에서 정한대로 상속하는 것이 법정 상속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즉시 개시되며 상속인이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속의 승인이라고 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인하는 것을 상속의 포기라고 한다.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혹은 포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포기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포기의사를 밝히고 법원의 상속포기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친족이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는 자동 상속인이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친족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7.3.1. 제1순위자

제1순위자는 배우자,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이며, 기혼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혼 자녀의 상속인 및 양자이다. 재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7.3.2. 제2순위자

제1순위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발생한다. 제2순위자는 부모, 미혼형제, 미혼자매, 기혼형제, 기혼자매이며, 기혼형제 혹은 기혼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있다.

7.3.3. 제3순위자

제1순위자와 제2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3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발생한다. 피상속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제3순위권자이다. 조부모와 외조부모에게 상속재산의 반씩 돌아간다.

7.3.4. 제4순위자

제1순위자, 제2순위자 및 제3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권은 피상속자의 4촌 형제자매에게 돌아간다.

7.4. 유류분(Legitieme Portie)

피상속인이 유언장에 상속을 어떻게 정했던지 정한 것에 상관없이 반드시 특정 상속인에게 반드시 줘야하는 법정 상속분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유류분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은 직계존비속과 피상속자가 자녀로 인정한 혼외자이다. 유류분 상속권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1/2이 유류분 상속권자의 몫이며, 두 명인 경우에는 2/3가, 세 명인 경우에는 3/4이 유류분 상속권자의 몫이다.

7.5. 상속 부적격자

다음에 열거된 사람은 상속부적격자로 민법 제 838조에 규정하고 있다.

7.5.1. 피상속자 살인죄 은 살인미수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

7.5.2. 피상속자 모함죄로 징역 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자.

7.5.3. 피상속자가 유언장을 쓰거나 취소하도록 강압하거나 행동한 자.

7.5.5. 유언장을 횡령하거나, 파괴하거나, 위조한 자.

(다음 호에 계속)



평화로운 도시, 족자 - Yogyakarta, Jogja, Yogyja, Jogjakarta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

지난 호에 이어

-살아 숨 쉬는 고도 (古都) 족자카르타-

끄라톤 아육야카르타 (Keraton Ngayogyakarta) 인 족자왕국이 처음으로 건립되고 초대 족자 국왕은 하몽꾸부위노(Hamengku Buwono) 1세였으며, 네덜란드의 식민통치에도 족자왕국은 존속하였다. 기안띠조약 체결 한 달 후인, 1755년 3월 13일에 하몽꾸부위노 1세 왕은 마따람 왕국의 반을 가지며 아육야카르타 (Ngayogyakarta) 수도를 가진 족자왕국에 취임을 선언했다. 1755년 10월 9일에는 하몽꾸부위노 1세 왕은 빠제또칸(Pacethokan) 마을에 아육야카르타 왕궁을 건립하라는 어명(御命)을 내렸다. 이 왕궁을 건립하는 데 1년이 걸렸다. 1756년 10월 7일에 하몽꾸부위노 1세 왕은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고, 그날

부터 정부와 관련된 활동(사회·정치·경제·문화·주택)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하였다. 2004년 제 6호의 족자 지방 법령에 따라 2009년 10월 7일에 족자정부는 1756년 10월 7일을 족자 건립 기념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영국인 Raffles경<자바의 부총독(1811년-1816년)>이 족자 왕국을 둘로 나누었다. 그중 한 왕국은 1813년 3월 17일에 세운 뿌로 빠꾸알람 (Puro Pakualam) 왕국이다. 하몽꾸부위노 2세 왕이 툃탕(Tuntang: 영국 식민지 인정)조약을 지키지 않자 Raffles경은 하몽꾸부위노 2세 왕을 강등시키고 하몽꾸부위노 3세를 왕으로 세우고 육야까르따 왕국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수디르만 장군 지휘 하에 독립투쟁을 할 때 족자는 임시 수도가 되었다.(1946년 1월 4일부터 1949년 12월 27일)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2010년에 1월 4일을 족자가 공화국 도시가 된 기념일로 정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건국 후, 네덜란드에 협력적이었던 족자 왕국은 망했지만, 족자의 술탄 하몽꾸부위노9세(1912년-1988년)는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에 협력한 공로로, 술탄의 직위를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명예직이지만 인도네시아의 부통령으로도 선출되고, 또 재무장관, 국방장관에도 취임하였다.

1988년에 술탄 하몽꾸부위노 9세가 사망하면서 아들 하몽꾸부위노 10세가 술탄직을 계승하였다. 1998년에는 술탄 선출에도 선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하몽꾸부위노 10세는 직접선거로 당당히 술탄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주지사를 겸하고 있다. 왕자는 없고 공주만 5명 있는 10세 왕은 후계자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왕위를 왕의 동생 구스띠 하디위노또(Gusti Hadi Winoto)가 이어받을 것인가, 공주가 이어받을 것인가. 유도요노 대통령 시절, 주지사직을 족자 왕과 분리하여 직선으로 뽑아야한다는 제안이 나와, 유도요노 대통령과 술탄 간에 갈등이 있었으나, 족자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현재 족자를 다스리는 하몽꾸부위노 10세 왕은 족자의 주민뿐 아니라 족자를 통일시키는 자바의 문화와 관습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Daerah Istimewa Yogyakarta (특별주 족자카르타)는...

족자는 행정구역상으로 자카르타, 아제와 함께 족자카르타 특별주의 수도이며 자바 섬에서 큰 도시에 속한다. 족자는 '술탄(Sultan)'이란 호칭으로 불리는 족자 왕과 빠꾸알람(Pakualam) 지방장관의 중앙정부가 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인도네시아 공화국과 연합되기 전에 족자의 정부조직은 야옥야카르타와 빠꾸알람으로 나누어진 왕국이었다. 왕이 그 도시를 다스리고, 주민들은 왕이 내린 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족자

의 주민들은 족자의 정부조직이 바뀌었음에도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왕국 문화를 지킨다. 따라서 족자가 가진 '특별주' 호칭은 인도네시아 공화국과 연합된 선물이라 할 수 있다. 족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은 불가사의(不可思議) 보로부두르 불교사원 뿐 아니라 힌두왕국 마따람이 건립했다는 뿌람바난 사원과 라뚜보꼬 왕국과 사원 등, 수많은 사적(史蹟)으로 둘러싸여 있다. 술탄의 왕궁과 별궁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이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풍의 (콜로니얼풍) 건축도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도시이다. 족자는 인도네시아의 고등교육의 중심지로 유명하며, 바틱·발레·드라마·시·그림자 인형극 등의 자바클래식 예술의 중심지로도 알려져 있다. 5세기부터 내려오는 바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2009년 10월 2일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족자는 인도네시아의 바틱 센터라는 인상을 준다. 또한 공항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족자를 공군의 도시라고도 한다. 독립운동의 영웅인 공군 준장의 이름을 딴 아디수쥬또(Adisutjipto) 공항이다. 공군사관학교도 족자에 있다.

관광슬로건 '끝없는 아시아'에서 알 수 있듯이 족자에 오는 사람은 무한한 경험을 하리라. 끝없이 펼쳐지는 낮선 삶을 위해 나는 족자로 가리라. 활짝 펼쳐진 황색 야자나무 잎의 푸른 광휘 속에 자바철학과 문화가 만나는 곳. 역사의 무게를 견디는 황색야자는 그 열매를 추스르는 밤에는 잠도 자지 않네. 예술과 역사가 만나고, 바다와 끼들(Kidul)여신이 만나고, 산과 삶이 만나는 곳. 그



리고 너와 내가 만나는 곳. 산다는 것은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족자. 깊숙이 잠재워 둔 그리움으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족자로 가리다.

산비둘기가 큰 소리로 초록을 읽는다.

새벽 보로부두르에 올라 일출을 보며 아침노을을 읽는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간다. 알 수 없는 부호를 그리며...

족자카르타 특별시의 상징

■ 상징은 원형이란 뜻의 '골롱(golong)' 과 원통형이란 뜻의 '길릭(gilig)' 이다. '골롱길릭(golong-gilig)' 은 상호 부조 생활을 상징한다.

■ 별은 종교와 교육, 문화의 가치를 상징한다.

자세히 보면 기념비 꼭대기에 인도네시아의 국화인 플라띠 (Melati: 자스민) 한 송이가 있다. 별까지 쪽 뺀 기념비와 플라띠 꽃은 신과 교육, 문화를 존경하는 태도를 표현한다. 그 외에 혼례식과 장례식 같은 신성한 의례를 거행할 때 많이 사용하는 플라띠 꽃은 예술과 문화, 종교적 가치를 반영한다.

■ 황금색별과 날개가 달린 기념비, 하얀 원을 둘러싸는 빨간 원, 대석(臺石), 벼와 목화는 순서대로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기본 철학인 Pancasila(pancasila)에 반영된 5개의 철학을 묘사한다.

■ 목화 꽃은 17개, 목화 잎은 8개, 그리고 벼는 45일, 즉 인도네시아 공화국 독립일 1945년 8월 17일을 상징한다. 그리고 벼와 목화는 조화와 공정, 부유를 상징한다.

■ 많이 나오는 빨간색과 하얀색, 그리고 똑바로 선 기념비는 애국심과 용기를 나타낸다.

■ 족자카르타가 특별시로 인정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하몽꾸부워노 (Hamengkubuwono) 9세



왕과 빠꾸알람 (Pakualam) 8세 왕에 대한 상징은 퍼 있는 날개에 붙은 9장의 안쪽 털과 8장의 외부 털로 그려져 있다. 두 인물은 인도네시아 독립한 다음, 즉 1945년 9월 5일에 족자 왕국과 빠꾸알람 왕국이 하나가 되어 특별시로 승인 받기 위해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였다.

■ 짙은 초록색과 옅은 초록색은 비옥하고 계곡과 언덕으로 둘러싸인 족자카르타 특별시의 자연을 상징한다.

■ 자바글자로 쓰여 있는 문장은 족자카르타 특별시가 온전하게 발전하도록 한마음으로 투쟁을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다.

■ 장식된 조각은 고귀한 문명의 가치를 보여준다.

족자의 상징

■ 색깔: 검은색은 영원을, 노란색과 황금색은 영광을, 하얀색은 청정, 빨간색은 용기를, 초록색은 부유를 상징한다.

■ 황금색 별은 풍요하게 살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벼와 목화는 의식(衣食)의 풍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상징한다.

■ 방패는 보안을, 두 개의 날개는 하몽꾸부워노 (Hamengkubuwono) 9세 왕과 빠꾸알람 (Pakualam) 8세 왕이 동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문화를 상징하는 구농안 (gunungan) 속에 있는 beringin 나무는 민주주의, 황소는 용감한 정신을, 끄리스 (keris) 칼은 정의에 대한 투쟁을 상징한다.

■ 문장 위에 자바 글씨체로 쓰여진 'Mangayu Hyuning Bawana' 는 '완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 라는 뜻을 가진다.

■ 족자를 상징하는 족자기념비(Tugu Jogja)가 중앙에 있다. 뚜구 족자는 족자의 왕궁, 빠랑뜨리띠스 해변, 트라삐 화산 같은 신성한 장소와 일직 선상에 있으며, 족자 도시의 중심이 된다.



은행에서 필요한 BAHASA

허영순 <OKTN>

저번호에 이어 입금전표와 은행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단한 용어들만 알아도 쉽게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곳이 은행인데 자주 안가게 되지요.
 요즘은 인터넷 banking도 잘 되어있어 은행창구에 예전처럼 자주 가진 않지만 혹여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금전관련된 업무는 현지인 직원에게 부탁하는것 보다 직접가서 처리하는게 어떨까요?
 송금증에서 사용되지 않았지만 입금증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은행전문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SLIP SETORAN DEPOSIT SLIP 1

CABANG / BRANCH: 2

Tanggal / Date: _____

Setoran untuk / For Deposit: Tabungan Giro Tabungan Kartu Kredit

Jenis Setoran / Deposit type: Cek/BG Tunai Mata Uang IDR (Other)

Asal sumber dana / Source of Fund: _____

Nama Bank / Bank Name	No. Cek/Bilyet / Cheque No.	Jumlah Valas / Foreign Currency Amount	Kurs *) / Rate	Jumlah Rupiah / Rupiah Amount
				Rp.
				Rp.
				Rp.
				Rp.
Jumlah Setoran / Total Deposit				Rp.
Ongkos / Charge *)				Rp.
Jumlah yang dikredit / Amount Credited *)				Rp.

Terbilang / Amount in word: _____

3) Dis. oleh Bank / Filled in by the Bank

Teller: 4

Penyetor / Depositor: 5

1. Slip Setoran : 입금 전표
2. Cabang : 지점
3. Ongkos : (비용) 수수료
4. Teller : 창구 (금전거래인)
5. Penyetor : 입금자

- Dividen Saham : 주식 배당
- Indeks Pasar Saham : 주가 지수

자주 사용되는 은행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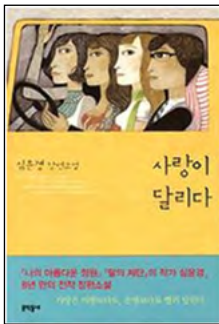
- Uang Muka : 선수금
- Asuransi : 보험
- Cek : 수표, 어음
- Giro : 전표로 된 어음 거리시 사용됩니다
 - Giro Pembayaran : 지급 어음
 - Giro Penerimaan : 받을 어음
- Saham : 주식
 - Komisi : 수수료
 - Bursa Saham : 주식 시장

- Valuta Asing : 외화 (외국통화)
- Kurs : 환율
- Agunan : 담보, 저당물
- Aset : 자산
- Bunga : 이자
- Debet : 출금(차변)
- Tamiran : 보증
- Kartu Debet : 직불카드
- Kartu Kredit : 신용카드
- Kartu Prabayar : 선불카드
- Rekening Tabungan : 예금계좌
- Deposito : 예탁
- Saldo : 잔고
- Transaksi : 거래
- Pembayaran Tagihan : 청구서 지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생충 학자 서민이 들려주는 책과 나의 이야기

서민(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의 힘, 글재주의 힘

저는 원래 어린 시절을 잘 못 보냈어요. 인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릴 때 저한테 못생겼다고 놀리던 그 광경들이 자꾸 떠올라서 ‘이거를 갚는 길은 뜨는 길이다. 뜨는 것밖에 없겠다.’ 생각해서 제가 글쓰기를 시작했죠. 글쓰기를 통해서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결국 떴습니다. (웃음)



사랑이 달리다
심윤경 저
문학동네

첫 번째로 추천 드릴 책은 <사랑이 달리다>입니다. 심윤경 씨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의 특징은 굉장히 재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설을 읽을 때 재미를 위해서 읽는 면도 있잖아요. 처음에 책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좀 재미있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 책이 딱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읽히고 정말 재밌어요. 또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차진 대사. 대사들이 너무 정말 차져요. 차지다는 뜻을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아, 이게 차진 거구나. 우리나라 소설들 중에서 드라마로 만들만한, 뭐 그럴만한 책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냥 이거를 베껴가지고 대본으로 써도 충분히 통할만큼 정말 대사가 멋져요. 이 책의 마니아들은 ‘빨리 이걸 드라마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만큼 재미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오찬호 저
개마고원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오찬호 씨가 쓴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입니다. 이건 지금 젊은이들의 실태를 보여주는 그런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손이 너무 떨려서 책장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20대들의 사고에 대해 나름대로 진보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20대가 굉장히 보수화됐다는 것이예요. 파편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연대나 타인에 대한 배려 같은 게 많이 없어졌구나. 물론 그 이유도 나와요. 일자리가 없고. 자기 스펙을 계속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을 배려하기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책에서 알게 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20대면 제 제자들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 제자들이 예전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섭긴 한데,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그런 책입니다.

2016년 안인회 임원산조금 명단

2016년 4월1일-4월30일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 연도	금 액	
					USD	IDR
1	한인회 법인회원	Achmad Baiquni	BANK NEGARA INDONESIA	2016		135,000,000
23	한인회 부회장	김 준 규	CIPTA ORION METAL	2016		67,000,000
24	한인회 부회장	문 창 윤	BAROCO	2016		67,000,000
25	한인회 명예고문	김 우 재	KOIN BUMI	2016	5,000	
26	한인회 이사	김 종 현	KOIN BUMI	2016	1,000	
27	한인회 부회장	신 규 태	INDO SUNG IL JAYA	2016	5,000	
28	한인회 이사	이 한 주		2016	1,200	
29	한인회 자문위원	정 무 웅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재단	2016	1,000	
30	한인회 자문위원	이 현 상	ROYAL KORINDAH	2016		13,210,000
31	한인회 이사	임 성 필	LSP INDONESIA	2016	1,000	
32	한인회 부회장	이 승 원	NEO HYOLIM	2016		67,000,000
33	한인회 자문위원장	구 종 율	JASINDO DUTA SEGARA	2016		13,200,000
34	한인회 자문위원	조 용 준	TIGA BINTANG JAYA	2016		13,000,000
35	한인회 자문위원	김 영 주	DEWA CITRA SEJATI	2016	1,000	
36	한인회 부회장	NO NAME		2016		67,000,000
총 금액					US\$15,200	Rp.442,410,000

2016년 안인회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명단

2016년 4월 30일 기준(접수순)

번호	성 명	납입연도	금 액 (IDR)
91	김 성 월	2016	300,000
92	이 태 복	2016	300,000
93	채 인 숙	2016	300,000
94	김 우 재	2016	300,000
95	김 종 현	2016	300,000
96	임 성 필	2016	300,000
97	정 무 웅	2016	300,000
98	김 선 영	2016	300,000
99	김 혜 경	2016	300,000
100	서 행 원	2016	300,000
101	이 현 숙	2016	300,000
102	장 인 식	2016	300,000
103	장 호 열	2016	300,000
104	홍 순 욱	2016	300,000
105	홍 중 서	2016	300,000
106	양 원 석	2016	300,000
107	남 승 우	2016	300,000
108	안 치 우	2016	300,000
109	이 장 호	2016	300,000
110	장 동 철	2016	300,000
111	김 영 율	2016	300,000
112	조 용 재	2016	300,000
113	김 창 근	2016	300,000
114	김 대 근	2016	300,000
	최 우 범	2015	(300,000)
총 금액			Rp.6,9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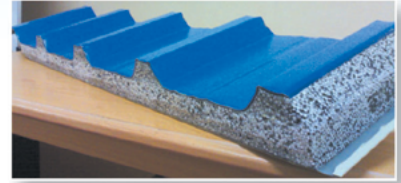
PT. KYUNG HEUNG INDONESIA

인도네시아 최초 샌드위치 판넬 생산업체

SANDWICH PANEL™ ROOF AND WALL

Mer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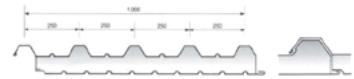
- High Efficiency insulation (no need A/C for housing)
- Protection of dampness, insulating effect, and water leakage.
- Long lifetime (approx 20 years)
- Simple erection and saving cost steel structure (CNP distance 1500mm)
- Clean factory



1. Type of Sandwich Panel™:

Roof : V-250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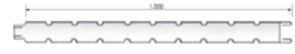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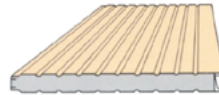
- EPS Panel
- Safe Board Panel (EPS + Graphite)
(Non flammable 2nd class registered building material)



Thick(mm)	50	75	100
Weight	0.5T	10.96	11.36
kg/m ²	0.6T	12.93	13.33

Wall : KHW-3 Type

- EPS Panel
- Safe Board Panel (EPS + Graphite)
(Non flammable 2nd class registered building mat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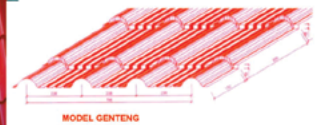
Thick(mm)	50	75	100	150
Weight	0.5T	9.99	10.19	10.59
kg/m ²	0.6T	11.56	11.76	12.16

Tile Roof : Genteng-Type

- EPS Panel
- Safe Board Panel (EPS + Graphite)

Length for the above mat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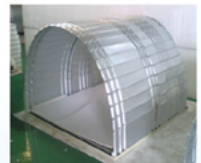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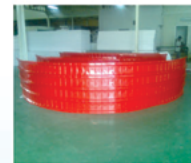
- Customer request up to 12Mts
- More than 12Mts to be discussed



Arch Type Roof : ATR-250

- Radius depend upon customers requirement.

Product & Fabrication: Doors, Swing Door, Hanger Door, Louver Etc



2. PERFORMANCE:

Korean Customer (2001):



Local Customer (2003):



Foreign Customer (2008):



Head Office:

Wisma Slipi 4th floor suite #F403
 Jl. S Parman Kav.12 Jakarta Barat
 Telp: (021) 5307244 Fax: (021) 5307256
 CP: Mr. Haryanto Choi HP: +628119568710
 E-mail : haryantochoi48@gmail.com
 www.trustedcompany.com

Factory:

Jl. Raya Serang KM.12 kampung Gebang
 Cikupa Tangerang
 Telp: (021) 59402532 Fax: (021) 59402496
 CP: Mrs. Lusti HP: +62815-10598501
 E-mail : sndpnl@yahoo.com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각 기업, 단체, 협의회, 동호회, 동창회 등의 모임에서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200-5949	Rp. A/C NO: 001-001-1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통역봉사자(안인외 소속) 모집 안내

자격: 인도네시아거주, 인니어 능통

연령: 제한없음

인원: 약간명

전화 : (021) 521-2515



문화회관 -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안내

시 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대 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대 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과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A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E** pt.innomate@gmail.com
T +62. 21. 7919. 2006(Rep.) **I** 070. 4644. 2280(Dir.) **F** +62. 21. 7919. 2062
 Design Division **A**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국대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동부자바한인회	031 568 8690~1
수카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중부자바한인회	0298 522 587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0251 7782 2959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 학교	7590 8820/50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가 가

한식왕
KANA 가나
RESTOLOUNGE



1. 복요리전문
2. 직수입한 삼합
3. 비즈니스컨셉 (삼계탕)
4. 돌잔치, 모임, 케이터링행사 대환영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훈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 918 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 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인니저희사무국장한규성)	0818 890 571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2996 1915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데미와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김 중성 (대표 Partner) : UI대 법대졸, 법대 대학원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	-------------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2016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집행부>

사공경 회장 0816 1909 976
 강희중 고문 0816 798 221
 이일하 부회장/기획/ 음협 회장
 0811 9103 108
 신돈철 부회장/전시/ 미협회장
 0878 5480 4815
 박형동 부회장/공연/ 한바패회장
 0811 149 586
 이수진 부회장겸 사무국장/ 헤리티지회장
 0816 1300 210
 채영애 감사/아르떼 여성합창단 단장
 0816 745 384

허민경 사무차장/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0812 1316 206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양승식 0811 111 363
 루시플라워 회장: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신돈철 0878 5480 4815
 문인협회 회장: 서미숙 0812 8178 050
 한바패 회장: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동호회 회장: 박의태 0811 876 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양상블단장: 변영극 0815 9101 898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채영애
 0816 745 384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허민경
 0812 1316 2064

<촉탁전문위원>

* 안선근: 현지단체교류 0816 883 223
 * 최석일: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워자야마트 726 9049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 558 2214
 가야성 725 7373
 가효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고주몽 8984 1000
 김군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보신명가 0254-848 4111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씨티서울 5289 7506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유미 720 7464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취연 725 1276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 7278 7802
 한민족 725 2688
 한솔 5290 3417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잠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39 4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서울일식 546 0840

ICHTHUS SCHOOL
 A Christian School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PRIMARY | SECONDARY | A LEVEL

Contact:
 South Campus: Jakarta Selatan
 T: +6221 7590 8820
 West Campus: Jakarta Barat
 T: +6221 581 2228

ACCREDITED ACSIS, edexcel Approved Centre, QUALIFIED TEACHERS, INTERNATIONAL CURRICULUM

www.ichthusschool.com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일오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 2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쁘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1514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쁘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쉽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폴하우스	0818 901 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9103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쁘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퓨터 0821-2222-6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따 공항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021)521 2515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공항).....	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싱가폴항공.....	021)570 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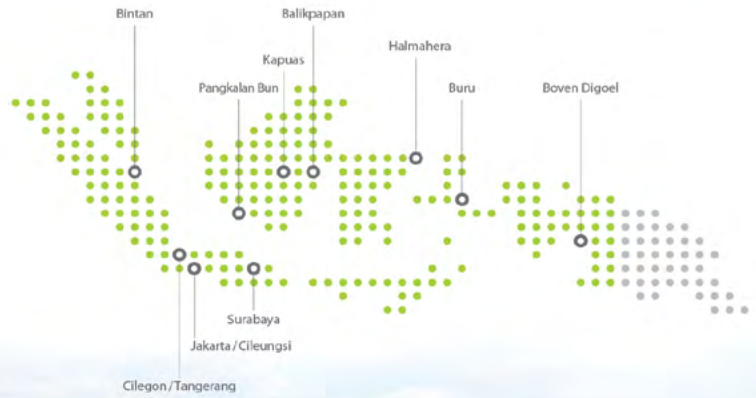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과

이노메이트는 차별화된 컨셉과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통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 디자인 회사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성공적인 디자인 프로젝트 전략과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가치를 극대화 하는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KIDECO,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and
friend moving towards
the future together

